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협정사조기문 (우)54859 전목목뱀자치도 전주시 덕친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6호(만성등, 오케이티워)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1일(수) 제 3183호

# 새만금 'K-배터리' 거점…전구체 공장 완공

#### LS-L&F배터리솔루션㈜ 4,100억투자전구체제조공장준공 공급망안정·배터리자립화선도 전북이차전지소재산업거점도약

국내 대기업 LS와 L&F의 합작법인 LS-L&F배터리솔루션㈜이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공장을 완공했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0일 새만 금산단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 션㈜ 공장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 도지사를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 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 다.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 대 표이사와 함께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L&F의 허제홍 의장, LSMnM의 구동휘 대표, LSMetal의 문명주 대표 등 LS 계 열사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공장 설립은 글로벌 비철금속 제조 역량을 갖춘 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을 선도하는 L&F가 손 잡고 LS-L&F배터리솔루션㈜을 만들 면서 지난 2023년 새만금 투자를 결정 한 결실이다.

당시 새만금산단 5공구 4만 평 부지 에 4,100억 원을 투입해 전구체를 생산 하기로 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준공 이 후에도 투자와 고용 확대가 이어질 전



새만금, 이차전지 대규모 생산거점 도약

지난달 30일 새만금산단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션㈜ 공장 준공식에 김관영 지사를 비롯 김의겸 새만금개 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및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 LS그룹 구자은 회장, L&F 허제홍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망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지만, 그동안 국내 수급 은 중국 등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 공 급망 불안정과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 출돼 있었다.

이번 새만금 공장 완공은 전구체의 대규모 국내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 한 전환점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수 국

내 자본과 기술로 중국 자본을 전면 배 제한 'K-Battery Alliance'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자립화의 선 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구자은 회장, 허 제홍 의장, 구동휘 대표 등을 만나 전북 과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 청하며, 이번 전구체공장 준공을 발판 삼아 새만금산단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 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의 RE100 산단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 대로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 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LS와 L&F가 협력해 전구체 국산화를 이뤄 낸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새만 금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 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 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윤수봉 도의원, 지역아동센터와 '완주형 온종일 돌봄' 방안 모색

#### 완주군아동센터와 정책 간담회 돌봄 공백 예방·협력 체계 논의 전북형·완주형 돌봄 실효성 강화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 영위원장(완주1)은 지난달 29일 완주 가족문화회관 2층에서 완주군지역아 동센터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을 중심으 로'를 주제로, 지역아동 돌봄 정책의 현 황과 향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간담회에는 윤수봉 의원을 비롯해 완 주군지역아동센터협의회 시설장 및 대 표 13명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이재명 정부 돌봄 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 청의 온동네 돌봄 계획, ▲2025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개선 요청, ▲ 아동복지교사 신규채용시 돌봄 공백 사전 예방, ▲도와 도교육청, 완주군과 완주군교육지원청 협력으로 사각지대



봄 체계 구축 등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 이 자리에서

없는 전북형 돌

봄 및 완주형 돌

윤수봉 의원은 "지역아동센터 는 완주군 아동

돌봄의 핵심 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가 협력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 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 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형 · 완주형 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적 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 군을 중심으로 한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 로, 지역사회의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도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지원을 통 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 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의회 '의정활동 총정리' 2025 가을호 발간

#### 제420·421회임시회정리소식지 58건 조례, 건의·결의문 38건 수록 문화·농축산·교육등목소리담아

전북도의회(의장 문승우)가 지난달 30일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5 가 을호(제9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열린 제420회·제421회 임시회에서 다 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실렸다.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의 생생한 현장 활동과 함께 분야별 도정질문과맞춤형 조례 제정은 도민을 위한 민생의회로 서의 역할과 의지를 담았다.

이번 호에서 정리된 제·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8건이며, 건의・ 결의문의 경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정상화 촉구 건의 등 38건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지역 문화 예술 인 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육성지 원사업 제도 개선과 농·축산업 현실을 고려한 한우산업 구조적 불균형 대책 필요, 낮은 인지도로 지원 제도가 미미 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등을 다뤘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툰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승헌 변호사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주제로 전북 진안 출신의 1세 대 인권 변호사인 한승헌 선생의 업적

을 기리고, 전북 교육 현장에 알리기 위 한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만화 로 만들었다.

포토에세이는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 들 '정읍 내장산'을 담았고, 특별기고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국 콘텐츠를 계기로, K-컬처의 뿌리인 전북의 존재감과 위상을 짚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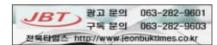
또한 10월, 가을의 풍년과 안녕을 기 원하며 도민의 삶을 지켜온 김제 벽골 제와 수호신 쌍룡놀이를 배경으로 한 표지 디자인과 간행물 편집 후기를 제 작했다.

'의정 타임머신'을 통해 제7대에서 제 10대까지의 의정 이슈를 담았고, 한글 날을 기념해 전북 출판문화의 역사를

돌아보는'전북 문화유산 답사기'등 다 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했다.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김정기 위 원장은 "결실의 계절을 맞아 다양하고 풍성한 의정 소식을 이번 가을호에 담 았다"며 도민의 많은 관심과 제언을 당 부했다.

한편 소식지 구독 신청은 도의회 홈 페이지www.jbstatecouncil.jeonbuk. kr) 또는 전화(063-280-3066)로 하면



### 이석연, 대법관 청문회 강행 비판

#### "요건 미비, 서두른 국회 이해불가 책임없이 '조희대 탄핵' 발언 안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달 30 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 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고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 했던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은 이날 정 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들의 불참 으로 무산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관 청 문회'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이 조 대법권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 마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장정철 기자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수사 (修謝)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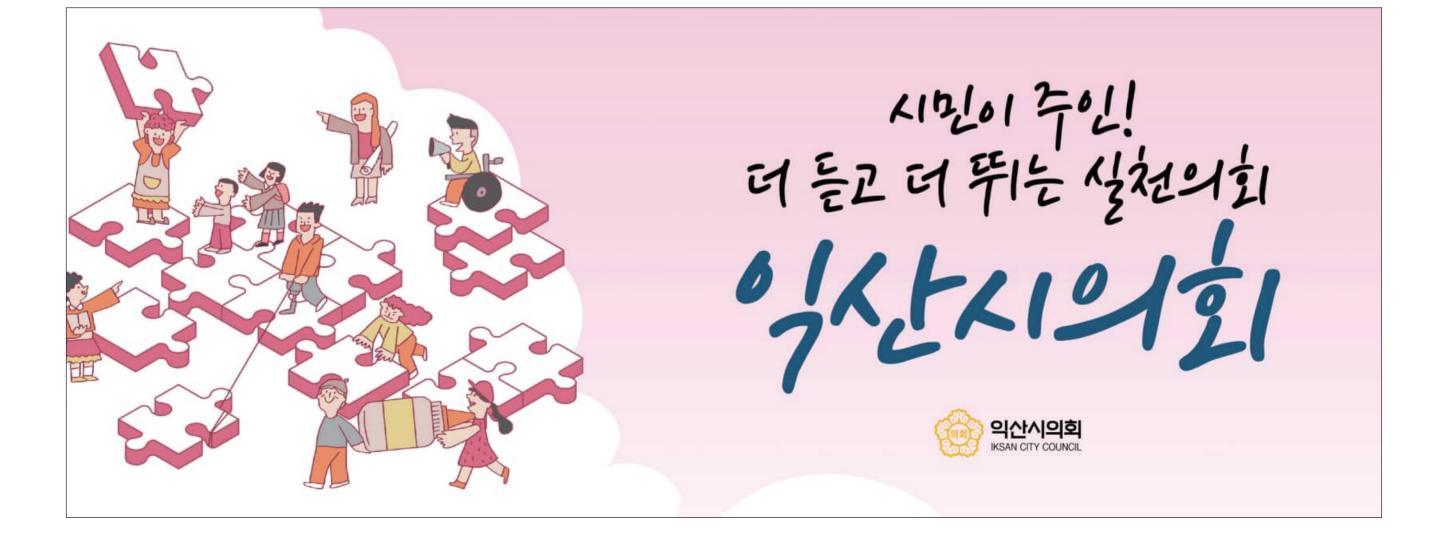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 해 본 적이 있나"라면서 "입법만능주의 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통합위원장은 '이대통령의 선출 직-임명직 권력서열'에 대해서 "권력 기관이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 출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 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취기 파기 환송'에 대해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 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 가지 않는다"며 "상고심을 왜 그 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입장 표 명을 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꼬집 었다.

그는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 며 '검찰청의 헌법기관'과 관련, "검찰 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 고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전북도, 2026년 핵심사업 예산 확보 '총력전'

#### 기재부 면담서 새만금 SOC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등 중점·신산업 필요성 집중 건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국가예 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도는 지난달 30일 기재부 예산실 국・ 업 및 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등 국회 단계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 다.

성(총사업비 1,738억원)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사업(총사업비 2,437억 원) 등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 성을 집중 건의했다.

옛 공항부지와 새만금 종자생명단지에 첨단정밀육종 연구센터 및 스마트온실 을 구축해 국내 종자산업의 글로벌 경 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익산 왕궁 자 연환경 복원사업'은 무분별한 축사 확장 으로 훼손된 생태축을 되살려 기후변화 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주 대응과 생태관광 기반 마련을 동시에 이루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환경 재생 사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에서 미반영되거 과장 등과 만나 새만금 SOC, 미래 신산 나 과소 편성된 70여 건의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확 보와 감액 방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6년 국가예산의 성공적 이어 김명중 재정성과심의관과의 면 확보를 위해 도-시군-정치권이 원팀을 고지역 중점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담에서는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 이뤄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기재부 등 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 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펼친다.

이를 위해 예결소위 위원, 원내대표, 로 추진 중인 대규모 신규 사업의 필요 정책위의장, 기재부 장·차관 등 핵심 인 사를 대상으로 지휘부 면담을 추진한다. '종자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은 김제 도지사 주재 전략 회의를 통해 주기적



전북도가 2026년도 국가예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기획재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 <사진=전북도>

으로 예산 반영 상황도 점검한다.

는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 예산 반영률 극대화에 나 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끝

까지 힘을 합쳐 국회 통과 시점까지 적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는 10월 말부터 극 대응하겠다"며 "새만금을 비롯한 지 역 현안과 미래 성장산업을 국가예산에 반드시 반영시켜 도민이 체감할 수 있 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안호영 환노위원장 "전북 산재병원 건립 시급"

#### 전북권산재병원·재활시설전무 "인프라 개선·장비 현대화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은 지난달 29일 근로복지공단 인천 병원을 방문해 산재환자 재활 현황 과 병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의료 진의 의견을 청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국에 12개의 산재병원을 운영 중이나, 전북도에 는 산재전문병원이나 재활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소특화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 단, 김제 지평선 제2일반산단 등 산 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면 산재환자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전 북권에 산재병원이 없어 재활과 치 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에서도 전북권 산재 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정책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안호영 의원

원 건립 적기" 라고 강조했 다. 또 "민간에 서 기피하는 회복기 이후 재활과 만성 요양 환자 돌

"지금이 바로

전북 산재병

봄 분야를 산재병원이 맡고 있는데, 정부의 의료개혁 방안에 산재병원 지원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완주 수 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 인프라 개 선과 장비 현대화가 시급하다"며 국 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 안 의원은 "산재환자의 조속한 직 업 복귀와 근로자 맞춤 복지는 노 동존중 사회의 핵심 가치"라며 "전 북 산재병원 건립을 통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 >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도, 임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 41억 투입, 다가구주택 12동 조성 유학생 15명 추가 유치 53명 생활 지아·순창이어 정읍도 조성예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작은학교를 지키고 마을에 활력을 더할 농촌유학의 새 거 점인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 시설' 준공식을 지난달 30일 임실군 지 의 농촌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정읍 사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심민 임실군수, 장종민 모집할 예정이다. 임실군의회 의장, 김호식 전북도 교육협 력과장을 비롯하여 농촌유학 가족과 지 역주민 등이 참석해 지역과 유학생 가 족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준공식은 기념사와 축사에 이어 테이 도록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프 커팅, 기념촬영, 시설 관람 순으로 진 행되었다.

이번 거주시설은 총 41억 원을 투입해 다가구주택 12동, 12세대 규모로 지사 초·중학교 인근에 조성됐다. 준공을 통 해 임실군은 농촌유학생 15명을 추가로 유치해 총 53명이 농촌유학 생활을 이 어가게 됐다.

현재 진안군과 순창군도 올해 농촌유 학 거주시설을 완공해 각각 59명, 91명 시는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유학생을

전북도는 2025학년도 2학기에만 257 명의 농촌유학생을 유치했으며, 거주시 설 조성뿐 아니라 유학경비 지원과 다 양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촌 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

김호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협력과



전북도는 농촌유학의 새 거점인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지난달 30일 임실군 지사면에서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될 것"이라며, "유학 가족들이 이곳 전 다. 장은 "농촌유학이 전북의 작은 학교와 북을 제2의 고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장정철 기자

#### 박희승 "공공의대법 통과로 의료대란 해결해야"

#### "지역·필수·공공의료 취약 심각 의료인력 체계적 육성 시급"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가 야기한 의료대란 의 여파가 여전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의 취약성이 드러나 보다 근본적 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안으로 추진중인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했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 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 석한 결과, 지난해 의정갈등 이후 총 4 차례 전공의에 대한 각종 수련특례에 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 집 결과 모집인원 13,498명 중 7,984명 (59.1%)이 선발되는데 그쳤다"며 이같 이 밝혔다..

지역별로 수련의 선발결과를 보면 세종특별시가 16.7%로 전국에서 가 장 낮았고, 다음은 전남(22.2%), 경북 (31.2%), 제주(40%), 강원(43.7%) 순으 로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바년 광주 (65.3%), 서울(65.0%) 등은 상대적으로 선발률이 높았지만 모집 정원에는 미 치지 못하는 등 전공의 복귀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안·성'을 비롯해 이른바 인기과목에 대한 쏠림이 심각한 반면 필수과목에 대한 기피가 두드러졌다.

전공의 과목별 선발률은 정신건강의 학과(93.5%)가 가장 높았고, 이어 안과 (91.9%), 영상의학과(91.5%), 마취통 증의학과(90.7%), 피부과(89.9%), 재활 의학과(89.5%), 성형외과(89.4%) 순으 로 높은 반면, 핵의학과(9.5%), 소아청 소년과(13.4%), 병리과(17.9%) 순으로 낮았다.

더욱이 비수도권의 경우 핵의학과



박희승 의원

지역의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 감소 문제도 심화되고 있 다. 의정갈등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전년 1,106명 대비 36% 가 급감한 708명에 불과했으며, 올해도 738명으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공보의 수 자체도 2016년 3,493명에서 올해 2.551명으로 10년 만에 27% 감소 했다.

지난해 말 기준, 1,273개의 보건지소 중 1,053개에만 배치되어 공보의가 없 는 보건지소도 17.3%에 달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의 기반도 취약하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은 5.2%, 병상수 도 9.4%에 불과하다. 인구 백만 명당 공공의료기관 개소수는 4.25개소에 그 쳐 OECE 평균인 13.9개소보다 크게 낮 았으며, 인구 천 명당 병상수도 1.2 병 상으로 역시 OECD 평균인 2.8 병상보 다 낮았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살리겠다 던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기반은 오히 려 송두리째 무너졌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취약한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 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의료인력 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 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 전북자치도, 동절기 가축질병 특별방역 돌입

#### AI·ASF·구제역 차단 집중 관리 22곳 상황실 운영·멧돼지 포획 등 농가방역준수당부

험이 높은 동절기(10월~내년 2월)를 맞 아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차단을 이다. 위해 가축 사육 밀집단지 등 취약지역 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개 시·군, 3개 유관기관 등 22개소에 방 재까지 누적 포획된 야생멧돼지는 약 3 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만 5,000두에 달한다. 연락 체계를 구축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 지역에서 5건이 발생했으며, 백두대간 울타리·소독설비·전실 등 8대 중요 방 을 따라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지속적으 역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를 재확인해 로 남하하고 있다.

전북과 인접한 경북 지역에서도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 이 이어져 도내 유입 위험이 커진 상황 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구제역 8년 연

을 중점 관리하며 강도 높은 차단방역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 자 발생 시에도 신속한 차단 조치로 피

도내 575호 양돈농가에 전담관 199명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경기 을 지정해 시설·환경을 점검하고, 외부 농가 유입을 차단한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 속 미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기 유입 가능성이 높은 동부권 5개 시군 목을 이어가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군)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 해를 최소화해 청정 축산 기반을 유지 정 처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달라"고 당 이에 따라 도는 동물위생시험소와 14 과 방역시설 점검을 보강하고 있다. 현 하고 있다"며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의



기를 맞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농장 방문 자제, 철새도래지 및 야생멧 돼지 서식지 출입 금지, 남은 음식물 적 부했다. /장정철 기자



### 전북도, 'ILP 서비스 시스템' 오픈

#### 산학연 기술연결 허브 기술 수요공급 연계 통한 산학연 협력 강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구축한 전북특별자치도형 ILP(Industrial 달 30일 오픈했다.

소와 산학연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목표 게 높였다. 로 개발됐으며, 기술이전과 공동연구 등 술매칭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ILP 서비스 시스템은 도내외 기업, 대 갖추고 있다.

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 논문, 유 망 기술, 전문가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들은 기술이전, 공동연구, 기술자문 등 로기대된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ILP 플랫폼은 단순한 기술정보 제공을 넘어, 기업의 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Liaison Program) 서비스 시스템이 지난 과 전문가를 자동 매칭하고, 맞춤형 연계 기능과 기술 카테고리 기반 검색 시스템 본 플랫폼은 도내 기업의 기술 애로 해 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크

또 기술이전 가능성, 협력 적합성 등에 실질적 협력 촉진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 대한 사전 예측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협 력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도 함께

특히 플랫폼은 기술정보 접근성 부족, 협력 파트너 탐색의 어려움 등을 겪는 중 수집·분석해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업 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 계획"이라고 밝혔다.

>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 기 술을 산업 현장으로의 이전하는 통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 신원식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 국장은 "이번 ILP 플랫폼 오픈을 시작으 로, 지역 혁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 화와 지속가능한 기술협력 모델의 정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 는 인공지능(AI)기반 기술추천 기능, 기 술협력 성과관리 모듈, 정책 연계 기능

등을 추가해, ILP 시스템을 도내외 대표 기술사업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전북테크노파크 이규택 원장은 "ILP 산학연 협력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며, 시스템은 기술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전북형 기술 플랫폼으로, 도내 기업의 기 술문제 해결과 R&D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플랫폼 오픈 이후에 도 사용자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지속적 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정보와 연 구 인력을 손쉽게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도내 산학연 협력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추석 전 농민공익수당 지급 … 농업 경영 안정

#### 농민6206명총34억원지급 지난해 대비 1억6000만원증가

전주시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추 석 전까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했 다. 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폭염 다. 과 장마 등 이상 기후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민공익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6206명, 총 34억 원 가에 지원된다. 규모로 지난해 지급액보다 1억6000만원 증가했다.

기존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 개별 단위로 대상이 확대·변경됐으며, 신규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주소 및 농업경영체 유 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

이에 따라 올해 농민공익수당은 1년 이 상 연속해서 전북에 주소와 농업경영체 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사육하는 양봉 농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 지 농가의 신청을 받아 △주소 유지 △농

농민공익수당 지급 방식은 올해부터 업경영체 △농업 외 소득 △한세대 중복 후 다음 날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도시요건 미충족자 등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6206명을 지급대상자 로 확정했다. 해당 농가에는 지역화폐인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논밭의 형 전주사랑상품권(돼지카드)으로 △1인 경 영체 60만 원 △2인 이상 경영체 1인당 30만 원으로, 4인 농업인 가구는 총 120 행 조건을 준수해야 받을 수 있다. 만 원까지 지급된다.

> 동으로 충전되며, 전주사랑상품권 미발 급자의 경우에는 전북은행 지점 방문 또 를 제한할 계획이다. 는 전주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카드 발급

단, 농민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의 환경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삶의 상과 기능 유지 △비료 및 농약 안전사용 준수 △농업·농촌 환경실천 협약 등 이

시는 하반기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으 이미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농 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된 금액 민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추석 전 자 에 대해 즉시 반환을 통보하고, 미반환 시 다음 연도부터 반환 시까지 사업 참여

/정혜민 기자

#### 전주동물원, 추석 연휴 정상 운영

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동물원이 추석 연휴에도 시 민과 귀성객이 가족과 함께 명절 을 즐길 수 있도록 정상 운영된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객과 전주시민이 가족과 함께 즐 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추석

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까지이며, 입장은 오후 6 까지 가능하다.

당일을 포함해 연휴 4일간 휴무 없

이 전주동물원을 정상 운영할 계

특히 연휴를 맞아 전주동물원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주차장

이 무료로 개방되고, 노약자와 영 유아 동반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휠체어와 유모차 무 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전주시 민과 함께 전주를 찾은 많은 귀성 객과 관광객이 전주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보고, 동물사를 포함해 주 변 관람로를 정비했다. 또, 가을꽃 을 식재하는 등 쾌적한 관람환경 을 조성했다.

또 올해 초 보수공사를 마치고 재단장한 남문매점도 추석 연휴 기간 관람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 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자전거 여권' 시범사업 추진

#### 탄소중립형 생태관광 콘텐츠 자전거 여행 프로그램 런칭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과 관광객이 자전거를 통해 전주의 매력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전주시 자전거 여권' 시범사업을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협 업하여 진행하는 이번사업은 자전거 이 용을 생활 속 여가와 관광으로 확산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공영자전거 대여 소를 활용한 코스 개발을 통해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거길을 따라 마련된 6개 코스를 완주 리는 장거리 코스, 임실군까지 달리는 도 하며 스탬프를 찍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코스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단거 '전주시 자전거 여권'은 전주 전역의 자 리 코스부터 하천을 따라 완주군까지 달 전적인 업힐 코스까지 총 6개 코스로 구

성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의 수 거를 활용한 탄소중립형 생태관광 콘텐 준에 맞게 참여할 수 있다.

청을 통해 지정된 공유자전거 대여소에 서 수령할 수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현 장에서 수령·참여할 수 있다.

면 된다.

증서와 기념 메달이 제공된다.

여권 신청은 10월 1일부터 수량 소진 시까지 6개 공유자전거 대여소(백제교, 삼천, 송천동, 아중, 평화의전당, 혁신동) 에서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전주지속가 능발전협의회(063-282-2959)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전

츠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전주시 자전거 여권은 온라인 사전신 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예 정이다.

최준범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전주 시 자전거 여권 사업은 자전거를 타며 전 여권을 수령한 참여자는 각 코스를 주 주의 다양한 풍경을 만끽하고, 탄소중립 행하며 지정된 장소에서 스탬프를 찍으 을 실천하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며 "많 은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여 전주시가 전 코스를 완주한 시민에게는 완주 인 새로운 관광문화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시는 올해 '일상 속 자전거 챌린지', '자 전거의 날 기념행사', '찾아가는 안전교 실',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전주시민 자 전거 보험 가입'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하며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 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소민 기자

#### 중기부-경찰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위해 맞손

신고시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연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 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 면, 중기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 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 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 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 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 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 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되어 조 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어도 행정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 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 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 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 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간의 협업 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 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 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 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 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혜민 기자

### 전주시, 추석 앞두고 <del>농축</del>산·반려동물 분야 종합대책 가동

#### AI특별방역·구제역 일제 접종 상황실가동등축산방역총력대응

반려동물 분야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를 확립하기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섰다.

매업체를 대상으로 사과·배 등 과일류, 김치·축산물·수산물 등 제수·선물용 주 요 품목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와 유통 와 함께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전주시는 '추석 명절 대비 농업·축산· 질, 출하 상황을 직접 점검해 유통에 차 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시는 생산자 시는 명절 성수품의 건전한 유통 질서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는 전주배가 제수·선물용 시는 전통시장·백화점·중·대형마트·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 도매시장 등 전주지역 농·축·수산물 판 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도로 집중소독 △가금농장 입식·출하 관 도동 소재)도 24시간 가동한다.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공영도매시장 유통 종사자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추석 성수기 환경을 조성해 추석 기간 도매시장을 찾 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에 맞춰 전주배 주요 산지의 생산량과 품 는 시민들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편리

단체 및 농협과 협력해 선별·포장·물류 서는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명절을 위해 소독도 실시하고 있다. 위생 및 방역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리 강화 △가금농가별 전담관 지정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또한 시는 추계·동 호 업무의 공백을 막기 위해 '유실·유기 절기, 명절 연휴가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동물 구조·포획반'을 편성·운영한다. 외부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를 실시하기 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고려해 전염병 발

동시에 시는 전주배 생산 및 출하 상황 도 했다. 이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매시장 생 사전 차단 및 축산 농가 피해 최소화

이를 위해 시는 추석 전 9월 한 달간 구 제역 일제 접종을 완료하고, 공동방제단 이와 함께 시는 축산·반려동물 분야에 과 협업해 축사 및 농장 진입로 등 방제

시는 추석 연휴와 AI 특별방역기간에 특히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 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비상 체제를 가 수요 증가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진되는 고병원성 AI 특별방역의 경우 △ 동해 상시 현장 출동 태세를 갖출 계획이 만경강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및 주변 다. 또, 축산 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도

시는 추석 연휴 동안 유실・유기동물 보

/정혜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는 30일 2025년 3분기 우수 소방공무원 시상식을 열고, 탁월한 성과 를 거둔 소방공무원 5명을 선발해 표창과 포상휴가를 수여했다

#### 전주덕진소방서, 우수 소방공무원 5명 선발

전주덕진소방서는 지난달 30일 교 이석우 △금암119안전센터 소방 2025년 3분기 우수 소방공무원 시상 식을 열고, 현장과 행정 분야에서 탁 월한 성과를 거둔 소방공무원 5명을 선발해 표창과 포상휴가를 수여했다.

이번 선발은 구조·화재·구급·행정 각 분야에서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시민 안전에 기여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전 반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수상한 직원들은 △119구조 대 소방위 진재훈 △대응예방과 소방

교 김지유 △전미119안전센터 소방 교 유창한 △팔복119안전센터 소방 사 김동영 등 총 5명이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우수 공무원 선발은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동료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전 문성과 혁신성을 함께 갖춘 소방조직 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혜민 기자

#### 전주완산소방서, 국가 전산장애에도 출동 이상 無

온라인 통한 민원 처리 일시 불가

재로 인해 국가정보시스템 일부 서비스 백이 없도록 조치했다. 가 장애를 겪었으나, 화재·구조·구급 등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소방서는 전산망 장애 직후 비상 대응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출동 기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록·상황 전파 등 모든 업무를 수기 작성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 표준화 방안으로 전환해 재난 대응에 공

특히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이 일시 중 재난 현장 출동에는 단 한 건의 차질도 단됐음에도 구급대원들은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정상적으로 수행했으며, 병 면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원 선정은 유선 연락망을 통해 실시간 조 율 체계를 가동하는 등 구급 서비스의 연 스템 △안전관리자 선임 △국민신문고 속성을 확보했다.

는 119상황공유망을 적극 활용해 경찰・ 지자체·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 한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화 전까지는 해당 민원은 반드시 소방서 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민원 처리는 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 달라"고 안내했 일시 불가하며,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시 다.

특히 △구조구급증명원 △정보공개시 등은 전산망 장애로 접속이 중단된 상태 또한 다수 사상자 발생 등 긴급 상황에 이므로, 해당 민원은 소방서 방문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전주완산소방서는 "시스템 정상

/정혜민 기자

## 중소기업 77.4% "철강, 美 관세 무관 품목"

#### 중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관세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품

목 추가 조치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공급 가능한 미국 현지 제조업체 존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복수응답) '해당 품목이 미 국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현지 소비자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33.6%), △미국 내 생산 저조 등 자체 조달 역량 부족 (19.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응답기업 중 61.0%의 대미 수출 파 생상품이 개별 바이어의 사양에 따라 조사 결과, 응답 중소기업 77.4%가 완전 맞춤형으로 제작된다고 응답했다. 미국 내 동등 품질, 규격, 동일 단가로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56.2%가 없다고 답했으나, 현지 업체 대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미만'(26.8%)으 로 응답하며, 내년에는 미국 내 밸류체인 으로 대체될 것이라 예상하는 기업이 많 았다.

이번 추가 조치로 신규 추가 품목에 해 당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금리 인하 등 관세 대응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68.5%) △국산 부품 발주사 세제

지원 등 납품 활성화 방안 마련(51.7%) △공급망 안정화 등 생산원가 감축 지원 (43.3%) 등 순으로 답변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 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 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 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 '비즈플러스카드' 신용점수 기준 완화

#### NICE 신용평점 879점 소상공인까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 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 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은 1일부터 '소 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대상을 NICE 신용평점이 879점(舊3등급) 소상 공인까지 확대하고, 법인 소상공인 신 청·접수도 시작한다.

더 많은 소상공인이 비즈플러스카드

이용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 준을 NCB 595점 이상 839점 이하(舊 4~7등급)에서 NCB 595점 이상 879점 이하(舊3~7등급)로 완화하고, 산불・호 우 등 올해 발생한 특별재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NCB 880점 이상이어 도 비즈플러스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도 기 구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또 1일부터는 법인 소상공인도 비즈 플러스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용점 수, 업력, 매출액 등 지원 요건은 개인사 업자와 동일하다.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지원사업' 은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이용 한도가 부여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받아 사무용기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12월 31일(수)까지 신청할 수 있 으며, 보증 승인 후 기업은행의 'IBK카 드' 또는 'i-One Bank(기업)'앱으로 카

드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비즈플러스카 드를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 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지원 요건을 충 족하는 소상공인께서는 사업을 신청하 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 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

/정소민 기자

### 전북RISE센터 '2차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

#### AI·바이오·헬스케 사업 등 추진…지역혁신 강화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JB지산학협력단 (이하 전북RISE센터)는 지난달 30일 '지 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2차공 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고, 지역대학이 AI, 바이오·헬스 케어, K-컬쳐 등 핵심 분야에서 연구과 제와 교육, 지역현안해결을 통해 지역혁

신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번 2차 공모는  $\triangle$ AI(인공지능)  $\triangle$ 바 이오 $\cdot$ 헬스케어  $\Delta$ 농수산식품  $\Delta$ K-컬 쳐 지역현안해결 과제를 포함해 이재 명 정부 국정목표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및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및 지역공약 등에 발맞춘 내용이 담겼다.

또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분야의 대표 과제를 추가해 청년들이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 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차 공모는 약 64억원 규모다.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 학으로, 사업계획 접수는 2025년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예정돼 있

쳐 선정할 계획으로 선정 결과는 2025 년 10월 중 발표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및 혁신기관, 기업 등은 도내 대학을 통해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전북RISE성과관리시스 템(https://portal.jbiu.or.kr)으로 사업계 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혁신이라는 엔진으로 달려왔다"며 "이제는 단순한 성장의 경 쟁이 아니라, 대학이 혁신의 방향을 주 선정 절차는 3일간의 평가 기간을 거 도적으로 제시하고 지역 산업을 견인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번 2차 공모를 통해 전북의 대학들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 매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 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주상진신협,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 펼쳐

#### 팜플렛·홍보물 배부 올바른 금융 정보 전달

전주상진신협(이사장 김현정)은 전주 중앙신협·전주중산신협과 함께 보이스 일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예방 수칙 피싱 예방 합동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 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지역 주 민들에게 올바른 금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상진·전주중앙·전주중산 협은 3GO 행사장 내에 전용 부스를 설치하 고, 방문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싱 예방 안내 팜플렛과 홍보물을 배 부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법을

특히 부스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자 주 활용되는 검찰·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형, 가족 납치·사고 빙자형 등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민들이 을 교육했다.

합동 캠페인에 참여한 주민들은 "뉴스 로만 보던 사기 수법을 직접 듣고 보니 더 실감난다"며 관심을 나타냈다.

전주상진신협 김현정 이사장은 "보이 스피싱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이 번 캠페인이 주민들께 경각심을 심어주 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 란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사회의



금융파트너로서 안전한 금융환경을 만 들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교

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우리흑돈' 맛·영양 과학적 입증 재조명

#### 재래돼지 혈통 계승 신개념 한돈…유통확대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한돈데 이 10월 1일'을 맞아 한국형 흑돼지 '우 리흑돈'을 재조명했다.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2023 년 29.6kg 대비 2024년 약 30kg으로 늘었다.

지하며 돼지고기 역시 국민이 가장 선 호하는 육류에 이름을 올렸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우리흑돈' 은 한국 재래돼지 혈통을 계승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은 신개념 한돈이다.

상업형 돼지(LYD)와 동일 사양 조건 에서 비교한 결과, 색·풍미·다즙성·연

조리 시 육즙 손실이 적어 촉촉한 맛 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농가에 보탬을 을 유지하고, 올레인산에서 기인한 고 소한 향 성분이 풍부하게 발생해 구이 "국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품질 로 조리했을 때 향미가 한층 살아난다.

으로 높았다.

삼겹살의 지방 성분 분석 결과에서 도 '우리흑돈'은 단일불포화지방산 비 돼지는 2024년 농업생산액 1위를 차 율이 높아 풍미가 개선됐고 오메가-6/ 오메가-3 비율은 20.35로 상업형 돼지 (LYD(23.06))보다 낮았다.

트에 입점해 그동안 온라인·직판 위주 을 수 있는 우리돼지 관련 연구에 힘쓰 로 이뤄지던 유통이 상시 판매 체계로 겠다"고 전했다.

확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도 등 관능 평가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조규호 과장은 "올해는 한돈데이와 추 석이 이어지면서, 우리 돼지고기 가치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며 향상과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 드테크과 강근호 과장은 "돼지고기는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삶 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자원이다"며 올해부터는 '우리흑돈'이 일부 대형마 "과학적 데이터를 축적해 안심하고 찾 /정소민 기자

#### 농진청, '탄소중립' 개량형 깊이거름주기 보급 속도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달 30일 경남 창녕의 농가 시험 재배지에 서 '개량형 깊이거름주기 장치' 시연회 를 열었다.

이날 장치 개발 배경과 구조적 특징, 작동 원리를 설명한 후 실제 마늘 재 배지에서 장치를 작동시켜 참가자들 이 장치 성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 록 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 이상재 부 장은 "앞으로도 지역 농업기관과 협업 해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과 보급으로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직접 체험 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말 /정소민 기자

# 2025년 직원 채용 ▶ 한국국토정보공사 블라인드 채용)학력,전공,성별,연령,어학성적 제한 없음 LX, 경영 위기 속 미래 인재 영입

#### 신입사원 30명 채용예정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경영 위기 속 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혁신을 위 한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모집분야는 △국토정보직 27명 △보조직 3명으로 총 30명이다.

채용일정은 △9월 29일 채용공고 △10월 1일~14일 지원서 접수 △11 월1일 필기시험 △11월 28일 역량 면접, 12월 중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형 인턴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LX공사 채용 홈페이 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고 분야별 중복 접수는 불가능하다.

LX공사 윤한필 경영지원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비 상경영 환경에도 불구하고 청년일 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으 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신 규채용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북전주농협-농협네트웍스, 영농차량 무상점검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은 지난달 됐다. 30일 농협네트웍스(대표이사 송병환) 와 함께 조합원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차량 무상점검 서비 스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수확철 영농차량 무상점 검을 통한 농업인 사고예방을 목적으 로  $\triangle$ 승용차  $\triangle$ 15인승 이하 승합차  $\triangle$ 1 톤 이하 화물차 등 영농에 활용되는 차 일·냉각수·공기압 등 주요 부품 점검 혔다. 및 간단한 소모품 교체 서비스도 병행

영농차량점검을 받은 조합원은 "농사 일로 바빠 차량 관리가 소홀했는데, 이 렇게 농협에서 직접 챙겨주니 안심이 된다"며 큰 만족감을 보였다.

이우광 조합장은 "조합원이 영농철에 는 바빠서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사고예방을 통한 안전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농협네트웍 - 안심하고 영농에 선념할 수 있는 환경 스와 함께 실내소독·와이퍼·워셔액·오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정소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자립준비청년 토크콘서트 개최

#### 드림 ON 프로젝트 일환

#### 현실적 어려움 지원 필요성 공유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 난달 29일 전주시 카페 양화소록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안아드림' 토 재단 캠페이너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여 크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드림 립준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드림 ON 프로젝트'는 전북 지역 공공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도·전북 도자립지원전담기관·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이 2021년부터 지역 자립준비청년의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진행하고 있

이'비밀에 기대어'의 저자 허진이 작가 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 강연자로 나섰다.

보육원에서 성장해 스무살 무렵 자립 생활을 시작한 허 작가는 '세상을 바꾸 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허 작가 스스로가 결혼 후 아름다운 러 사연을 중심으로 행사에 참석한 자

또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사연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들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과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자 립준비청년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이 끌 주역"이라며 "이들이 외롭지 않고, 이번 '안아드림' 토크콘서트는 에세 꿈을 향해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정소민 기자

5

## 전북교육감 예비후보 '이남호' 본격 행보

#### 공론의 장 형태 '진짜배기 ज्रिम् विष्युं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य कि स्वार्थित कि स्वार्य कि "지속가능지산학연필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전 전북연구원장)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

이 전 총장은 지난달 30일 전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배 기 전북교육포럼'의 출범 계획을 밝히며 "학교와 지역,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지속 가능하면서 튼튼한 교육의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은 도내 교사· 학부모·전문가들이 전북교육 발전의 뜻 을 모아 '실력향상·교육공동체 구현' 등 교육정책을 발굴·제안하는 공론의 장을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전 총장은 "폐쇄적인 학교 중심 교 육의 한계를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대학, 산업체가 함께하는 교육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통합교육으로 교육체제 변화를 역설했다.

이어 그는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다"면서 "과거에 대한 성찰, 현재의 진단, 미래를 향한 준비 등 모든 과정을 도민과 함께 고민하며 아이들이 더 큰 세상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진짜배기' 전북교육포럼'이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남호 전 총장은 최근 뉴스1에서 진행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2위를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며 "전 북연구원장을 그만둔 지 한 달 채 되지 않았는데 과분한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해 도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최근 화두가 되는 교사의 정치 기 본권 문제에 대해 "학교에서는 교사로 다. 서,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어떠한 정 치 참여는 일정 부분 보장돼야 한다고 생 각한다"며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정치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 후보로 거론되는 이남호 전 전북대학교 총장이 본격적인 행 보에 나섰다.

개입은 어느 정도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

조사에서 16.2%로 2위를 기록한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9월 1일 자로 전북연구

원장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전북교 육감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도내 각 지역 한편 최근 뉴스1 차기 전북교육감 여론 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최성민 기자

#### 전북교육청, 필리핀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교류

전북 미래교육 현장 참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필리핀 교원 초청 디지털교육 연수'를 성황 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필리핀 카비테주 교원 16명이 참가해 전북의 디지털 교육 혁신 현장을 체험하고 상호 교 류의 폭을 넓혔다.

연수단은 전북의 AI 중심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인공지능 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코스웨어 활 용 수업 등 전북의 미래교육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

이어진 교사 간 수업사례 나눔 시 간에는 전북 교원들이 디지털 기반 수업 설계와 경험을 공유하고, 카비 테 교원들은 자국 교실에서의 활용 사례와 과제를 함께 나누며 활발히 토론했다.

또한 전주한옥마을, 순창 장류마을, 강천산 등 전북의 전통문화와 자연 을 체험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는 연수단이 직접 준비한 공연과 함께 수료증이

필리핀 교원 연수단장은 "한국의 디지털 교육에서의 탁월함을 보았 고, 너그러움과 협력에 깊이 감동받 았다"며 "전북에서의 경펌을 필리핀 교사들과 나누고, 교실에서 실천하며 학생들에게 전수해 나가겠다"고 전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초청 연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 어 미래세대를 위한 국제 교육협력 의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 벌 교육 연계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 전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7곳, 수업공개

#### 총 14차례 실시…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기대

전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 이 하반기 수업공개를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유보통합 모 델 발굴을 위해 운영되는 도내 영유아 학교 시범기관 7곳이 이달까지 총 14차

밝혔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 충분한 이용 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등 영유아교육・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수업공개는 지난달 30일 초록빛유치 원(전주)을 시작으로 △10월 17일 해바

어린이집(전주) △10월 23일 가온누리 어린이집(완주) △10월 28일 이리성심 10월 30일 쉐마어린이집으로 이어진다.

상반기는 영유아학교지원단 멘토와 시범운영 기관 교(직)원, 유아교육 전공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수업공개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는 도내 공사립유

례 수업공개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라기유치원(김제) △10월 21일 테바솔 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영유 유치원  $\triangle 10$ 월 29일 샘물숲어린이집  $\triangle$  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기관은 영유아교 육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 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업 공개뿐만 아니라 운영 나눔 등 다채로운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교직원 역량 강화에 힘쓰 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대학교 웹툰만화콘텐츠학과가 새만금개발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홍보 협업 프로그 램 '새만금 버디버디'가 지난달 30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전북대 서인석 교수, 산학연 협력 공로 '중기부 장관상' 수상

#### 신소재 분야 연구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산업발전기여

전북대학교 서인석 교수(공대 신소재 공학부)가 산학연 협력과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 상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상은 최근 제주 부영호텔에서 열린 '2025년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전 유공자 시 상식'에서 진행됐다.

년, 전북대에서 9년간 근무하며 신소재 분야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특히 산 업체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접목, 지

역 산업 발전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5년간 국제학술지 23편, 국내 학 술지 7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 학 술대회에서 46회 발표를 이어가며 신소 재 및 배터리 분야의 최신 연구를 선도

특히 중소벤저기업무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을 통해 ㈜정석케미칼과 공동 연구한 '차세대 고효율 이차전지용 전해 질 소재(황화리튬)'의 국내 개발에 성공 서 교수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에서 5 했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으로 이어져 기업 매출 증가, 양산공장 증설, 사업화 적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서 교수는 "이번 수상은 대학과 기업 과를 창출하고, 글로벌 신소재 시장에서



성과로 직결되며 산학협력 R&D의 대표 이 함께 일궈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산 선도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 업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성

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성민 기자

#### 전주대-새만금개발공사, '새만금 버디버디' 성료

홍보 콘텐츠 제작 협업

전주대학교(총장직무대행 권수태) 웹 툰만화콘텐츠학과가 새만금개발공사 와 공동으로 추진한 홍보 협업 프로그램 '새만금 버디버디'가 지난날 30일 성황 리에 마무리됐다.

이 프로젝트는 새만금 지역의 매력을 알리고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 것이

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서 는 재학생들이 젊은 세대의 시각에서 바

라본 새만금의 다양한 모습을 작품에 담 아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9개 우수 작 품에는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명의의 상 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웹툰만화콘텐츠학과 조윤숙 학과장은 "학생들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보여주는 이번 프로젝트는 의미와 즐거움이 함께 하는 작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만금에 깃든 많은 분들의 애정과 노력이 더 다양한 시도를 6개월간 '새만금, Z세대와 함께 그리 통해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

/최성민 기자

# 

### 애초기 사용

• 애초기 사전 점검과 안전장비

착용 필수!

▶ 애초기 작동 시 돌이나, 나뭇가지등 장애물 제거!



벌쏘임 주의

•냄새가 강한 향수및 화장품 사용을 자제하고, 차분한 색상의 옷을 착용하기!



해충 주의

- 긴팔, 긴바지를 착용하고 해충 기피제를 사용합니다.
- 귀가 후 즉시 샤워나 목욕을 반드시 합니다.



#### 익산시-원광대, 도서관 협력 독서문화 확산·상생 발전 도모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도서관 협력을 통해 지역 독서문화 확산과 상생 발전을 함 께 도모한다.

익산시 영등시립도서관과 원광대학교 중 앙도서관은 지난달 30일 원광대학교 중앙 도서관에서 '지역사회 도서관 교류 및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주민들에 게 수준 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 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도서관 간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상호 주최하는 독서 행사·문화 프 로그램 공동 참여 및 홍보 협력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교류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독서 행사 와 문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운영하 고, 상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도서관 서 비스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3~8일 추석 한마당 큰잔치 열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추 석 연휴를 맞아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 유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 고자 '추석 한마당 큰잔치'를 오는 3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다.

먼저 추석 연휴 첫날인 10월 3일과 4일 오후 1시에는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 역 사와 근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연극이 박물관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어 5일부터 7일까지는 오후 1시 30분 마다 신명나는 풍물놀이가 박물관 광장에 서 펼쳐져 추석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 릴 예정이다.

박물관은 역사체험극, 풍물놀이, 마술, 저 글링, 공예품 만들기 능 다양한 행사 및 체 험을 운영해 이곳을 찾는 관람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길 기대하고 있다.

군산시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추석 명 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이 박물관에 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무성서원 토지 15필지 국가문화유산 토지 지목 변경

정읍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무성 서원 소유 토지 15필지, 6,946㎡의 지목을 '사적지'로 변경하며 역사적 품격 회복에 나섰다.

무성서원은 지난 1968년 12월 19일 사적 제166호로 지정됐으나 토지 지목은 당시와 동일하게 전, 대, 도로, 종교용지로 남아 있 었다.

시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했고, 7월에는 무성서원 유림과 지목 변경 논의를 이어왔 다.

이 과정에서 시는 국가기록원에서 발굴 한 무성서원 과거 흑백사진 3장과 1968년 12월 문화공보부가 작성한 사적 지정 문서 를 무성서원에 전달했다. 더불어 관련 연구 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이 힘을 모았 다. 이러한 협업의 성과로 무성서원 유림의 지목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번에 사적 지로 공식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유적지 본질에 부합하는 지 목 정비는 국가 문화유산의 위상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 라며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과 민관 협력 을 통해 해결 가능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 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정읍시 '민생안정 종합상황반' 가동

#### "안전과 편의 최우선" 재난·재해·산불방지 등 8개분야대책마련

정읍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이어 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민 과 귀성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을 보낼 수 있도록 '2025 추석 명절 민생 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해 8개 분야에 걸 친 종합상황반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재난·재 해, 산불방지, 의료·방역, 물가 안정, 교 통, 생활환경,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전 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사고를 예방하고, 연휴 기간 중 긴급 상황에도 신

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특히 전기·가스·화재 등 생활 밀접형 안전사고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해 재난·재해 대책반과 가축전염병 상황실 을 상시 운영한다.

여기에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 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안 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시는 연휴 기간 중 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약국을 지정해 진료 서비스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했다. 민생경제 지원에도 무게를 실었다.

시는 정읍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기존 보다 늘려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할인율 도 15%로 상향해 명절 소비 진작에 나선

다. 생활환경 관리에도 철저히 대응한다. 생활쓰레기는 5일과 6일(추석 당일)을 제 외하고 정상 수거되며, 생활환경대책반 과 상하수도대책반이 상시 운영돼 민원 에 신속히 대응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귀성객 편의를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정읍역, 버스터미 널, 샘고을시장 등 혼잡 예상 지점에 교통 지도 단속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교통대 책반을 운영해 정체 해소에 나선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민과 고향을 찾 아주신 귀성객이 편안하고 안심되는 명 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대책을 철 저히 추진하겠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 화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 로 삼아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 다이로움' 구매한도 대폭 상향

기존 60만원서 100만원으로

익산시가 이리시·익산군 통합 30 주년과 시민의 날(10월 3일)을 기 념해, 10월 한 달간 지역사랑상품 권 '익산 다이로움'의 개인별 구매한 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 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9월에는 충전 인센티브

율을 10%에서 13%로 상향한 데 이 어, 이번에는 구매한도까지 대폭 상 향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 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10월 중 다이로움을 100만 원까지 충전할 경우 13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 60만 원 충 전 시 제공되던 7만 8,000원보다 5 만 2,000원 늘어난 금액으로, 시민들 의 체감 혜택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리시·익산 군 통합 30주년을 맞아 시민 여러분 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소비 를 촉진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 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 5일까지 구매 금액의 최대 30% 돌려받아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 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오는 10월 1 일부터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은 주공시장, 수산물은 공설시장・역전시장・신영시 장·수산물종합센터에서 참여할 수 있 한급된다.

고객은 행사 기간에 지정 시장 내 '온 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점포' 안내 판이 부착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수산 물을 구입한 후, 환급소를 방문해 구매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0원이 며, △34,000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67,000원 이상 구매 시 20,000원이

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환급소 위치는 △주공시장 상인회사 무실 2층(농축산물) △공설시장 1층 중 앙 쉼터·수산물종합센터 본관동 3층 (수산물)이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 터 오후 5시까지다.

다만, 행사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일 찍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군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명절 물 가안정과 함께 지역 전통시장 매출 증 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등이다. 이들 주차장은 도시재생뉴딜 3~12일까지 총 239면 운영

정읍시가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과 시민 편의를 위해 원도심 공영주차장 을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시내 주요 도시재생 공영주차장 4개 소, 총 239면을 무료 운영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대상 주차장은 △새암로 공영주차장 (수성동 575-1, 37면) △시기 도심 공 영주차장(시기동 230-6, 41면) △조곡 천 들풀마당(시기동 364, 70면) △청 년꿈터 주차타워(수성동 527-3, 91면) 망이다.

사업으로 조성돼 정읍정심마을관리사 회적협동조합과 리본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이번 조치는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과 원도심 상가를 찾는 시민과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의 주차난 해소를 위 해 추진됐다. 특히 단순한 주차 편의 제공을 넘어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라는 효과도 예상된다. 주차 걱정 없 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원도심 상 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침체됐던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전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명절 연휴 소아 응급진료 정상 운영

#### 지역 의료기관 협력 응급진료 체계 유지

익산시가 소아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의료 안전 망을 가동한다.

익산시는 추석 연휴 동안 원광대학 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내 소아응 급실을 오전 10시부터 24시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명절 연휴 안정적인 소아응급실 운영 방안 마련 을 위해 원광대병원 관계자들과 간담 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익산시 보건소장과 담당 왔다. 자, 원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소아청소년과장·응급의료진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휴 운영 방안, 지 역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응급실 내 소아 진료 공백을 최 소화하기 위해 원광대학교병원과 협약



터 소아진료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 을 포함해 총 5억 원(원광대학교병원 자부담 1억 5,000만 원 포함)을 확보 하며 소아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속도 를 내고 있다.

응급의료센터 내 소아 진료 구역을 마 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을 맺고 2024년부터 '권역응급의료센 련하고, 익산시는 의료 인력 보강을 위

소아응급실은 평일은 18시부터 24 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24 시까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교 대로 신속·정확한 진료를 제공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추석 연휴에도 지역 소아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 사업을 통해 원광대학교병원은 권역 을 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의 지원을 아

/익산=최준호 기자

#### 익산시,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기간

#### 전공무원지역경제활성화동참

익산시 전 공무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다.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통시장 장보 기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 다.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 어넣고, 명절 이후에도 전통시장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이날 정헌율 익산시장과 직원들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북부시장을 비 롯한 7개 전통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 기에 나섰다.

이날 정헌율 시장과 직원들은 북부· 고 말했다.

익산장, 남부·구시장, 중앙·매일·서동 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시랑 상품권 '다이로움'을 이용해 물품을 구 매했다. 시는 장보기 특별기간 전통시 익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달 장소비 촉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전통 장보기 행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장 안에 있는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3 만 원 이상을 다이로움으로 결제한 경 우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다이로움 포 인트를 1만 원을 지급한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장보기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 민들이 전통시장에서 따뜻한 정을 나 누며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추석 명절 대비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 주요 성수품 집중관리 전통시장 이용 당부

군산시가 추석을 앞두고 물가안정 합 동 캠페인을 지난달 30일 공설시장에 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경제의 안정 도 모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구매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으며, 한국여 성소비자연합 군산지부 ·소비자교육중 앙회 군산지회 등 소비자단체 회원 30 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가게를 방문해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성수품 부당한 가격 인상 자제와 친절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수요 증가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판매·단위가격



가대책종합상황실을 열었으며, 오는 9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일까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 4개 반을 편 성해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시는 건전한 유통거래 이번 활동에 앞서 시는 주요 성수품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통시장, 대규 커질 것을 예상해 지난달 24일부터 물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에 대한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 명절 을 맞이해 시민들과 군산을 찾는 관광 객들이 평안하고 넉넉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안정 대응체계 유 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총력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축 께 운영해 가축과 차량의 외부 전염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방역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책을 본격 추진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 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 년보다 발생 시기가 빨라 귀성객 이동 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24시간 가축전염병 신고 접수와 방역상황 대응 체계를 유 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 2인 1 개 반 체제로 상황실을 상시 가동하며, 기존 1개소였던 거점소독시설도 2개 소로 확대했다. 통제초소 6개소도 함

또한 추석 명절 전후인 2일과 10월 최근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10일을 '일제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산 농가와 관련 시설에 일제 소독을 실시 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동 방제단 차량 7대와 시 자체 소독 장비 3대를 활용해 철새 도래지와 가축 밀 이 많은 추석 연휴와 겹쳐 각별한 주 집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할 방침이 다.

> 축산과 관계자는 "추석은 인구 이동 이 많은 시기로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 가 크다"며 "축산농가와 시민들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 /정읍=김정인 기자

### 권익현부안군수,인구감소대응총력강조

#### 10월 중 연석회의서 추석연휴 안전대책 농촌활력제고등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달 30일 열린 10월 중 연석회의에서 인구감소 대응, 농촌 활력 제고, 분기별 성과 관리, 추석 연휴 대비 안전대책, 행정전산망 화재 사고 대응 점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군 정 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모두의 행 복농촌프로젝트'와 관련해 부안군은 농 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특산물 미식 산업 개발 과 웰니스 체험형 관광 등 지역특화 산

수는 "농촌이 단순한 생활공간을 넘어 일자리와 여가가 조회를 이루는 지속가 능한 활력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전 부서에 신규 과제 발굴과 중앙정부 정책 연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 다.

이울러 정주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확대 정 책도 강화한다. 현재 전북도의 '전북사 랑도민 제도'와 함께 부안군은 자체적으 를 통해 출향민과 관광객이 지역을 찾고 소비와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권 군수는 "관계인구 확 대 정책은 지방소멸을 막는 핵심 대응 책"이라며 제도 홍보와 관광객 유입 활 성화를 위한 부서별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올 한 해 남은 기간을 군정 성과 업을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 의 가시화와 내년도 도약의 중요한 시

기로 규정하며 예산 집행과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곧 내년도 예산 확보와 군정 발전의 발판이 된다" 며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통해 신뢰받 는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 통, 화재, 위생, 방역, 상하수도, 응급의료 체계 등 전반적인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도로, 전통시장, 숙 로 '부안사랑인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 박 및 음식업소 등 군민과 관광객 이용 이 많은 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계 기관과의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강조하며 "모든 군 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읍 ·면이 맡은 분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 고 당부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국제종자박람회 준비 '착착'

#### 22~24일 개최 우리 품종 우수성 세계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5 국제종 자박람회'를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백산 면 씨앗길 232)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특 별자치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 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산업 박람회로, 국내 종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품종의 우수 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 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해 지난 8월 25일부터 2주간 온라인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번 박람회 는 "씨앗하나, 세상을 바꾸는 힘(One seed, Change the world)"란 슬로건 아래, 민간육종연구단지 내 종자기업

과 전·후방기업등 90여 개 기업이 참 여한다.

해외바이어 초청과 수출상담 지원 을 강화해 81억 원 규모의 종자 수출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차례 의 조직위원회를 통해 종합 실행 계획 을 점검하고 준비현황을 면밀히 확인 했으며,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철저 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박람회의 핵심인 전시포(4ha)에는 총370여품종을 정식했으며, 전문가의 생육자문을 받아 최상의 상태로 준비 하고 있다.

또한, 종자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 사전 수출상담회를 진행했으며, 박람 회 종료 후인 10월 27일부터 2주간 온 라인 사후 수출상담회도 예정돼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국·내외 바이어

와 관람객을 맞이하기 위해 철저히 준



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박람회가 국내 우수품종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종자산업의 미래 가치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온 가족 함께 즐기는 '김제지평선축제' 8일 막 올려

#### 8~12일 K-콘텐츠 체험 공연 등 프로그램 풍성

어디로 갈까? 고민된다면 김제를 주목 해야 한다.

김제지평선축제가 오는 8일부터 12일 까지 5일간 열린다.

물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 려한 야간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올해는 특히 단야광장을 중심으로 구 성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축제의 중 심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단야설화 와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상영관을 비 롯해 멀티플렉서(실감미디어) 체험관 과 4D체험관이 마련돼 아이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오감만족의 경험을 한국 고유의 전통 농업문화를 직접 손 력하고 있으니 시민여러분과 관광객 선사한다.

여기에 핑크퐁과 싸리콩이 캐릭터샵, 김제 시민들이 간직해 온 소중한 기록 을 담은 김제사진관까지 더해져 김제 다. 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느낄 수 있

는 문화공간으로 확장됐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아이들과 함께 달고나 만들기 체험장에서는 가족 단 위 관광객과 외국인들이 함께 달고나 를 만들며 K-콘텐츠 속 장면을 직접 체 벽골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27회 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지평선축제의 최고 인기 프로그램인 아궁이 쌀밥 짓기는 고구마, 콩 등 지역 이번 지평선 축제는 추석 명절과 맞 농산물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지평선 굽 스와 함께 새롭게 보완돼 참여 가족들 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먹거리, 화 의 식사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내고, 특별히 소원을 적어 날려보는 소 원연 날리기 한마당도 준비돼 있어 추 석에 모인 가족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지는 진정한 가족 축제로 거듭나길 바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의 본질인 농경문화 체험도 빼놓 을 수 없다.

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참 양하게 준비돼 있어 도시민들에게는 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을 것으로 보여진

매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메뚜기잡기 프로그램은 미취학 또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싸리콩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행운권 추첨 이벤 트와 참여자 선착순 이벤트가 함께 진 행돼 메뚜기 조립 모형과 귀여운 모자 가 선물로 제공되며, 아이들의 환한 웃 음이 가득한 지평선 키즈파크는 지난 해 인기였던 에어바운스를 한층 더 보 완해 규모를 키우고, 주변에 다양한 놀 이 콘텐츠를 추가해 더욱 풍성한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해는 민족 대 명절 추석과 맞물려 열리는 만큼, 가족 이 함께 소통하고 세대가 함께 어우러 라며, 특히 모든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 길 수 있도록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발전하 벼 수확, 새끼 꼬기, 가마니 짜기 등 는 축제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사랑상품권, 10월 한달간 최대 20% 할인

#### 추석 맞아 군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고창군이 추석을 맞아 군민 생활안정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사랑 번 행사는 10월 한 달간 진행된다.

10% 캐시백 적립을 통해 최대 20% 혜 누릴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추석 명절 특별 할인을 통해 군민들께 월 구매한도를 100만 원까지 확대해 군 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소 민들의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10만원 상품권 구매 시 대된다"며 "군민활력지원금과 정부의 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10%(1만 원) 선할인을 적용받아 9만원 민생소비쿠폰이 더해져 군민 모두가 에 구매하고, 이후 고창사랑카드로 결 더욱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 이번 특별할인은 △상품권 구매시 제하면 결제금액의 10%가 캐시백으로 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10% 선할인 △고창사랑카드 결제시 적립돼 실질적으로 최대 20% 혜택을 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가 기



#### 고창갯벌,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4억8800만원 확보 학교', 갯벌의 가치를 새의 시각으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유산청 공 모사업에서 '세계유산 홍보지원사 개 분야, 6개 사업에 선정돼 총 4 억8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프로그램' 모두 모두 선정되는 쾌 거를 거뒀다.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은 5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 을 쓰면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 램'도 역시 3년 연속 선정되며 꾸 준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유산 홍보지원사업'은 철 새 탐조대회 '고창갯벌 빅버드레 이스'를 비롯해, 연령별 맞춤형 교 육프로그램 '고창갯벌 세계유산

로 바라보는 '고창갯벌 세계유산 OUV 공감 콘텐츠'로 구성된다.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은 탐 업'과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 2 조 문화 확산을 위한 탐조박람회 '고창갯벌 버드왓쳐스데이(Bird Watcher's Day)', 갯벌의 소리와 풍경을 함께 즐기는 '고창갯벌 사 고창갯벌은 '홍보지원'과 '활용 운드워킹(Sound Walking)', 캠핑 과 탐조를 결합해 청년을 대상으 로 진행되는 '고창갯벌 청년캠프' 로 구성된다.

>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공모사업 선정은 고창갯벌이 지 닌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 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고창 갯벌의 가치 확산과 인식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김제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5년 연속일자리 정책성과인정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달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 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시상식에서 공 시제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며 고용노 동부 장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사업 비 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로 지역소멸위기 선제대응)'이라는 민 선8기 일자리 비전이래, 산업·계층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집중 추진 한 성과로 2021년과 2022년 우수상, 2023년 최우수상, 2024년 대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5년 연속 수 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는 그간 특장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전략적·공격적 투자유치를 통해 대기

업 ㈜두산을 비롯한 10개 기업을 유치 하고 수출지원책 등을 강화해 기업의 고용을 촉진, 제조업 분야 종사자 581 명의 고용창출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 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과 청년창 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하며 전국 최다 청년 후계농을 육성하 는 등 농업고도화를 통한 청년 농업인 시는 '지평선(지역특화 평생일자리 의 지속 성장을 위해 노력한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경기침체와 고 용불안정 등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5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맞춤 형 일자리정책 추진을 통해 최선을 다

/김제=온봉기 기자

#### 부안군,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 평가

청렴문화 정착 박차

층 중회의실에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위원장 정화영 부군수 주재로 2025년 이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부안군 부패 취약분야 자체 개선시책 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선정된 6건의 시책들을 대상으로 청렴부안혁신위원회 위원들 이 직접 발표를 듣고 파급성, 지속성, 노력도 등 세부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를 위한 다양한 우수시책을 지속적으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부안 로컬푸드 인증부터 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까지 운영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

성 향상을 위한 '투명한 로컬푸드 직매 장 운영', 계약·회계 전반에 대한 외부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부안군청 3 전문가 상시 자문 체계를 최초로 도입 한 '튼튼한 구조로 계약행정의 리빌딩'

>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패 취약분야 개선시책을 각 부서가 자발적으로 발 굴하고 추진하는 과정 자체가 청렴한 공직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밑거름 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패 방지 로 발굴해 부안군의 청렴도 향상에

> > /부안=신상수 기자

#### 김제시, 불법현수막 일제 점검·정비

앞두고 불법현수막 일제 정비를 실시 하고,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로 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 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했다.

수막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관계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스쿨존, 했다.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추석 연휴를 소방시설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확산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솔선수범하기 위 시는 최근 불법 현수막이 난립해 도 해 각 부서뿐 아니라 유관기관 등 공 공에서부터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 록 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상시 정 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정효곤 도시건설국장은 "추석을 앞 특히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현 두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불법광 서 공무원 및 지역 옥외광고협회가 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 /김제=온봉기 기자

#### 고창군, 귀농귀촌인 화합·소통 한마음 대회 성황

(사)고창군귀촌귀촌협의회가 지난달 30 일 고창군실내체육관에서 귀농귀촌인과 지 역주민 등 300여명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2025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소 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협의회는 지난해에 이어 귀농귀촌인의 재능을 활용 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에게 따 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념식에서는 고창을 사랑하는 협의회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마련한 성금을 고창 군에 기부하는 기탁식을 가졌으며 귀농귀 촌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6명에게 군수 표창과 군의회 의장상을 수여했다.

아울러 2부 행사에서는 귀농귀촌인과 지 역민이 함께하는 어울림 행사로 농악 한마 당과 밴드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해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박만석 협의회장은 "협의회는 귀농귀촌 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한마음 행사는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제2의 고향으로 삼으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 의 협력이 고창군의 인구정책 추진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기념학술대회성료

고창군이 지난달 30일 고창청소년수련관 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31주년을 맞아 '기 록과 자료로 본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학 술대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연구 소(소장 김양식)와 전북사학회(회장 이병 규)가 공동 주관했다. 독립기념관 정경민 연구원의 "취의록과 거의록으로 본 고창 동 학농민혁명"발표로 시작해 조재곤(서강 대), 신진희(경국대), 최진욱(고려대) 등 동 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이 발표를 이어갔다.

발표 이후에는 동학농민혁명연구소 김잉 식 소장을 좌장으로, 윤상원(전북대), 배형 섭(성균관대), 송진현(경북대), 이병규(전북 사학회) 등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권위자들 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있는 종합토론을 펼

심덕섭 고창군수는 "앞으로도 동학농민 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기념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 마무리…청년체감정책수립목표

부안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대회의실에 서 청년의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 련하기 위한 '2025 부안군 청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회를 완료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16개 관련 부서 팀장 등이 참석해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 하고, 향후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 으며, △용역 추진 개요 △국내 청년정책 동향 및 부안군 현황 △청년 실태조사 결 과 분석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제언 △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부안군은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신규 정책 제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단순 한 실태조사를 넘어 청년들의 실제 목소 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지역에 활력을 불 어넣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 순창군 숙원사업 공설추모공원 '탄력'

#### 봉안당국도비12억7천확보'속도' 연면적 1,000㎡ 6천기 수용 신축 시급한 시설 확충 군민 불편 해소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 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원을 확보 하며 사업 추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

이번 확정된 예산은 봉안당 신축을 위한 것으로, 연면적 1,000㎡ 규모에 약 6,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 비 10억 5천만 원과 도비 2억 2,500만 원이 반영되면서 군은 재정 부담을 줄 히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지적돼 왔다. 일 수 있게 됐다.

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화장률이 80% 를 상회하고 있으나, 봉안당과 자연장 지 등 공설 장사시설이 충분히 갖춰지 획 결정과 각종 영향평가, 실시설계 등 기하며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해 지난 7 지 못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군민과 출향인들은 고비용 있으며, 이는 군민 복지 차원에서 시급 망이다. 군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순창군이 공설추모공원 봉안당 건립을 위한 국도비 12억 7천만원을 확보하며 사업 추 진에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사진은 조감도. <사진=순창군>

군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순창군은 매년 430여 명 이상 지난 2023년부터 풍산면 금곡리 일원 에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왔 다.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군관리계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현재는 기반공사와 자연장지 조성이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 중단이 의 사설 납골당을 이용하거나 원거리 진행 중으로, 이번 봉안당 국도비 확보 추모공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가 사업 전반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전

96억여원을 들여 자연장지, 봉안당, 산 분장지,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 공설추 모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이 사 업 절차 및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 월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 유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전국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쾌거'

#### 5년만성과…노동부장관표창 청년고용률432% 달성 '역대최고'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주 관으로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행중인 '전국 지방자치 단체 일자리대상'은 고용노동부가 전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 초 226개)를 대상으로 지역 일자리 창 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격려 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지역 일자리 대 별·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농촌 달성했다. 표 시상식이다.

년 만에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며, 고용노동부 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인센티브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으로 삼아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있으 등 16개 지원사업과 미래산업을 육성 며,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바이오 하는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통해 청년 전년비 증가했다. 산업 육성 △전통문화 활성화 △계층 고용률 43.2%로 자체 역대 최고치를



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원시>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 지원을 2024년 남원시는 2020년 우수상 수상 이후 5 5대 집중 분야로 선정해 일자리 현안을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능동적 으로 전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남원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소

지난해 하반기 기준 통계청 지역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원시 고용률은 전년 대비 4.3%p가 증가한 74.7%(`23 년 70.3%→`24년 74.7%)를 기록했으 며, 여성고용률 68.1%(+3%p), 취업자 남원시는 '일자리 창출'을 생존전략 통창구를 운영하고, 청년 주거비 지원 수 44,600명(+800명), 상용근로자 수 16.400명(+300명) 등 모든 고용 지표가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추석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가동

#### 3일~9일 공공보건의료기관 문 여는 병의원·약국 등 운영

~10월 9일) 군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가능하다. 를 가동한다.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 심야시간대에는 공공야간·심야약국 포털(www.e-gen.or.kr) △응급똑똑앱 완주군이 추석 연휴기간(10월 3일 (App)△완주군홈페이지△완주군보건 소상황실(063-290-3015) 통해서 확인

군은 연휴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13 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진 개소, 문 여는 병·의원 38개소, 약국 29 료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안내는 물 개소를 운영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본, 의료기관 진료체계 유지와 점검을 통해 군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운 (운영시간 오후 9시~자정)인 고산면 소 재 남문약국, 삼례읍 소재 세화약국을 이용하거나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소 로 신고된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해 특히 완주군 보건소는 연휴 기간 비 열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안전상 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 유미숙 보건소장은 "집 근처 병·의원, 약국 이용 시 129, 119로 미리 확인해

> > /완주=김명곤기자

### 완주군의회 "완-전 상생사업 기공식 시기 조정해야"

#### 군의회 통합반대특위 우려 표명 "민감한 시기 강행은 혼선 우려"

완주군의회 통합반대특별위원회(위 원장 서남용)는 지난달 30일 긴급간담 회를 열고, 완주군이 추진 중인 만경강 레길 기공식과 고산 파크골프장 준공 식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전북도·전주시·완주군이 합의한 상생 협력사업으로, 예산과 행정 절차에 따 "다만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 논의가 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행사 시기 추진 중이다.

강행할 경우, 상생의 본래 취지가 왜곡 돼 통합 찬성의 신호로 오인될 수 있고 군민 여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협력사업이 통합과 연계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특히 10월 1일로 예정된 만경강 물고 전주시장이 직접 밝힌 것처럼, 상생협 물고기 철길 조성사업·상관저수지 둘 기 철길 조성사업 기공식에 대해 "전주 시 구간은 아직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완주군이 서둘러 단독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해당 사업들은 2022년 11월 기공식을 진행한다면 상생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서남용 위원장은 "지금은 통합 논의 협의를 거쳐 총 28개 사업이 합의됐으 라 추진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가 한창인 만큼, 이러한 대외 행사가 군 며, 14개는 완료 나머지 14개 사업이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에 대외 행사를 조정이나 취소 등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 유의식 의장 역시 "의회는 이미 상생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도지사와 력사업은 통합과 무관하게 당초 합의 대로 책임 있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2022년 11월 협약 체결 이후 지금까지 13차례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순창군>

#### 순창군, 기업인 간담회 열고 애로사항 청취

#### 17개 기업·유관기관 참여 인력·근무환경 등 개선 논의

순창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기업인 을 약속했다. 과 기업지원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의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 자금 융자, 환경개선 지원, 청년근 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대상㈜, 사 조산업㈜, 한국씨엔티㈜, ㈜한주세 라믹스, ㈜스퀴즈맥주 등 17개 기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업 대표와 관계자, 전북경제통상 진흥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 북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인력 수급 문제, 노후 근무환경 개선, 농공단지 기 반시설 정비 등 기업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논의됐으며, 군은 이 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제도 개선

특히, 순창군은 올해 근로자 출· 퇴근 승합차량 유류비 지원, 국내 이번 간담회는 기업 현장의 건 박람회 참가 지원, 중소기업육성 로자 기숙사 조성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해 기업들로

> 또한 정규직 신규채용 임금 지 원, 직업훈련 교육비 지원 등 일자 리 창출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 과를 거뒀다. /순창=박지헌 기자

#### 남원시 어린이 건강체험관 '놀이로 실천 강화'

#### 흡연 폐해 등 생활습관 교육 실습에 놀이 요소로 흥미 유도

동들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과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어린이 건강체험 관'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관은 흡연·음주 폐해 교육 및 음주안경 체험, 구강·위생교육, 손 씻 기 체험, 올바른 식습관 교육, 클라이 밍 신체활동, 신비의 방(태아성장과정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강 실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 됐다. 특히, 풍선 마네킹을 활용한 심 폐소생술 실습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남원시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아 직접 체험하며 놀이 요소를 결합해 흥미를 유도하는 동시에 위기 상황에 서의 대처 능력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전화신청 또 는 구글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예약 방식을 도입해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며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과의 연계를 강화해 보다 많은 아동이 프 되어 있으며, 아동들이 직접 보고 듣 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 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생활 속 건 원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필리핀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 카가얀주 랄로시 현장 면접 진행 150명 지원 50명 최종 선발

완주군이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 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면접을 적으로 평가했다. 진행했다.

를 방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을 말로시장이 직접 면접단을 맞이해 환 위한 현장면접을 실시했다.

했으며, 서류심시를 통해 100명이 면 어, 두 지역 간 우호와 협력을 더욱 굳 접에 응시했다. 지역 농가의 인력 수 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 요와 현지 지원자의 적합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50명을 최종 선발할 예 계절근로자 파견을 넘어 상호 신뢰를 정이다.

으로 진행됐으며, 체력검사에서는 건 기, 악력과 배근력, 기능검사 등을 통 해 농작업에 필요한 기초 체력을 확 인했다. 심층면접에서는 지원 동기와 결을 위해 필리핀 현지로 직접 찾아 태도를 살펴 성실성과 책임감을 종합

현장에서는 플로렌스 올리버 B. 파 군은 최근 필리핀 카가얀주 랄로시 스쿠알(Florence Oliver B. Pascual) 영 인사를 전했다. 그는 이번 방문이 이번 면접에는 총 150여 명이 신청 단순히 근로자를 선발하는 자리를 넘 조했다. 이를 통해 완주군과 랄로시는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확대의 현장 면접은 체력 검사와 심층 면접 뜻을 함께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 동계 밤, 중국 수출길 올라

#### 첫 선적식 본격 해외 공략 나서 올해 수출 목표 250톤·65억

계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서 밤 중국 수출을 위한 선적식을 개 최하며,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해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 안찬 우 농협 전북지역본부 부본부장, 최형 우 ㈜트루델 이사, 밤 작목반 회장, 옥 광 밤 공선회 회장 등 각계각층 주요 커지고 있다.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동계 밤의 해외 수출 확 대 의지를 다지고, 지역 농산물의 우 순창군 동계농협이 지난달 30일 동 수성을 국내외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영일 군수는 "선적식이 동계 농협 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요한 출발 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동계 밤 수출은 약 250톤, 6억 5,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 으로 예상되며, 이번 선적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 관계기관의 기대가 더욱 /순창=박지헌 기자

#### 제1회 완주 만경강배 트레일런 성공 개최

완주군 고산자연휴양림에서 개최된 제1 회 완주 만경강배 트레일런 대회가 성공적 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고산자연휴양림을 출발해 안수산과 위봉산성을 경유해 돌아오는 코 스로, △36km △22km △7km 세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남자 36km 부문에서는 김형아 씨가 4시 간 58분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여자 36km 부문은 신민아 씨가 6시간 30분의 기록으 로 우승하며 극한의 도전을 완주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 와 연계해 운영되며, 참가자 경품과 식대를 모두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 로 지급해 축제와 체육행사의 시너지를 높 였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완주의 먹거리 와 문화를 함께 즐기며 더욱 풍성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완 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한 건강하 고 지속가능한 스포츠 행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완주를 스포츠 메카 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피오리움, 가을맞이 '어텀패스' 혜택 풍성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 (Fiorium)이 가을철을 맞아 다양한 무료·할 인 혜택을 담은 '어텀패스(Autumn Pass)' 를 선보인다. 가을시즌 주요 행사와 연계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마련 됐다.

피오리움은 개관 4개월 만에 8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문화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모 션은 △추석 연휴 △남원 3대 가을축제 △ '여행가는 가을 남원' △할로윈 등 주요 가 을여행을 주제로 운영된다.

먼저 추석 연휴에는 어린이와 경로 방문 객 대상으로 무료입장을 진행하며, 남원 3 대 가을축제(△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 봇 △제33회 흥부제 △2025 남원국가유산 야행)기간에 방문 인증을 하면 어린이·청 소년 무료입장을 제공하여 남원 축제와 전 시관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0 월 31일 ~ 11월 1일 할로윈 기간 코스튬을 착용한 관람객에게는 야간 무료입장과 기 념품을 증정 할 예정이다.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가을 프로모션' 과도 함께 한다. 10월, 11월 두 달간 '여행 가는 가을 남원'을 통해 남원시민과 동행인 무료입장, 타지역 축제 방문 인증 시 50% 할인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선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색 있는 이벤트를 마련해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풍 성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남원, 준고랭지 여름배추 새 소득작목 가능성 확인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원예 특작과학원)과 함께 추진한 2025년 준고랭 지 여름배추 안정생산 기반 구축 시범사업 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도 여름배추 재배 및 농가 소득화가 가능한 작목임을 확인했다.

사업은 강원도 등 배추 주 생산 지역의 연 작피해로 인해 고랭지 여름배추(8~9월 출 하) 재배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재배 지역을 고랭지에서 준고랭지까지 확 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남원을 비롯한 5개 시군에서 추진됐으며 우리 시에서는 운봉, 인월, 아영 에서 1.2ha를 식재하고 9월 29일부터 3일간 출하 작업을 마무리했다.

연초 2월 농촌진흥청과 at(한국농수산식 품유통공사)와의 협약체결에 따라 at에서 전량 수매해 농가소득에도 기여했다.

김장배추 대비 수확량은 70%정도로 아쉬 운 점이 있었으나, 소득은 조소득 기준 2배 이상 높은수준으로 다양한 고온극복 기술 을 통해 여름배추 생산 시 고소득이 가능하 다는 점은 중요한 계기가 됐다.

/남원=정하복 기자

#### 무주군, 장보기 행사 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앞장

무주군이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 사'를 각 읍면 장날에 맞춰 진행 중이다. 지 난달 30일 안성 덕유산시장을 시작으로 10 월 1일에는 무주 반딧불시장, 2일에는 설천 삼도봉장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군 추석맞이 장보기 행사는 경기 침 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돕고 주 민들에게는 실속 있는 장보기를 제공한다 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지난 30일에 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과 유관 기관·단체, 상인회 관계자 등 20여 명 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이들은 제수용품과 농축산물을 직접 구 입하며 성수품 물가 및 원산지 가격 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무주사랑상품권'과 '소비 쿠폰' 이용 홍보도 진행했다.

시장 상인들은 "시장 분위기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며 "무주사랑상품권 구매 한도 증액과 15% 할인 행사, 그리고 때맞춰 지급된 소비 쿠 폰도 대목장 활성화에 한몫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장바구니 물가가 치 솟고 있는 가운데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 에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을 통해 상인도, 주 민도 활짝 웃는 명절이 되면 좋겠다"라며 ' 무주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무주사 랑상품권의 원활한 발행·유통에 힘써 지역 경제에 큰 숨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 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 인 실시…진안읍 전역 대청소

진안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앞 광장에서 기관단체와 지역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읍 전역에서 대대 적인 대청소를 실시했다.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은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 의를 앞두고, 깨끗한 국토에서 가족과 손님 을 맞이하기 위한 전 국민 대청결 운동이 다. 집중호우로 인해 쌓인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청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안군은 정부의 캠페인 취지에 적극 동 참해 이날 진안읍뿐 아니라 면 단위에서도 일제 대청소와 캠페인을 병행했다.

발대식에는 진안읍 기관·단체, 지역 주 민, 진안군청 실과소, 진안읍 행정복지센 터 직원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일회 용품 사용 줄이기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용담호 수질보호 실천 △자발적인 청소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졌 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수군, 임산부・예비 부모 대상 태교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오는 2일까지 장수 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예비 부모를 대상 으로 태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임산부와 영아 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4회차에 걸쳐 진 행되는 교육은 매년 꾸준한 호응을 얻고 있 다.

교육은 기초검사(혈압·혈당·빈혈)를 시 작으로 전통과 현대 의학을 접목한 △산 전·산후 건강관리와 산후증상 예방 교육  $\Delta$ 치유의 숲에서의 임산부 힐링 명상과 숲 체험 △아기용품 만들기 등 실용적이고 체 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엄마와 아기의 구강 건강 관리, 임 산부의 건강행태 개선 등 통합건강증진 교 육과 연계하여 모성의 건강과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임산부와 예비 부모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 지원을 위 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 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의료원 보건의 약팀으로 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노후상수도정비 262억 확보

#### 산암정수장 재건설 월운정수장 개량 등 추진

진안군이 환경부 주관 '2026년도 노 후상수도정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 되며 총사업비 262억4천만 원을 확보 했다. 이는 지난해 358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된 쾌거로, 진안 군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기반 마련 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 40%의 분담 구조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은 △산암정수장 재건설(164.2억 원) △월운정수장 개량(18.4억 원) △부 귀·상전 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79.8 억 원)등 총 3개 사업이다.

20년 이상 운영돼 온 산암정수장은 노후화된 시설과 함께 기계식 여과기 (일명 깡통여과기)를 여전히 사용 중으 로 수질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 다. 특히 기술 진단 결과 'D등급'을 받 아 시설의 전면적인 현대화가 불가피 해, 이번 사업을 통해 전면 재건설이 추 진된다.

월운정수장은 최근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 사고 등 상수원 오염 사고에 효과 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 기계식 여 이번 사업은 국비 50%, 도비 10%, 군 과기를 최신 급속 여과지 방식으로 개 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상류 지역의 수 질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정 수 기능을 확보한다.

> 부귀·상전 블록의 노후 상수관망 정 비는 지난해 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

을 새롭게 포함시킨 것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 진안군 전역에 보다 안정 적인 광역상수도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정수장 현대화를 통한 수질 안전성 확보, 노후관 정비로 불필 요한 수돗물 손실 방지, 수질사고 및 시 설 고장 시 신속 대응 가능, 전 지역 광 역상수도 공급 기반 확충을 마련하게

전춘성 진안군수는 "2년 연속 노후상 수도정비사업에 선정된 것은 군민들의 건강한 물 복지를 위한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 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반 시설을 정 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 장종민 의장, 전북도의원 출마 선언

"3선의의정경험,더큰울림으로 군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장이 내년 에 치러질 제12대 전국동시지방선 거에서 전라북도의회 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장의장은 3선 군의원으로, 현재 임실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 으며, 지난 11년동안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쉼없 이 달려왔다.

특히, 군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장종민 의장은 출마의 변을 통해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울림을 주는 도

의원이 되고자 한다"며, "임실군 발 전을 위해 도의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며, 군민의 성원과 사랑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 발 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 다"며, "군민과 약속을 지키는 성실 한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더 큰 봉 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임실군,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 성공적 개장

#### 반려인새로운힐링명소로부상 전북최초반려동물동반캠핑장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반려동물 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 한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성공 적으로 개장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개장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심 민 임실군수, 군·도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반려동물 가족 등이 참석해 캠핑 장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오수면 금암리 199번지 일원에 조성 된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은 전북 최초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가족형 캠핑장으로, 반려동물 특화단지 건설을 위한 민선 8기 김관영 지사의 공약사업 으로 추진됐다.

총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 난 7월 개장 직후부터 캠핑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특 히 대형견도 동반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조성한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이 성공적으로 개장했다

되어 있으며, 반려견 전용 샤워 시설・ 놀이터·카라반 사이트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춰 반려인들이 안전하고 쾌 적하게 머물 수 있다.

또한, 주변 의견관광지 내에 조성된 과 체험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 워리의 정원 등 산책로 및 놀이터 역시 캠핑의 즐거움을 더하고 있다.

캠핑장 내 모든 사이트 내에는 울타 여만에 270여명의 이용객과 170여마 리 및 대형데크, 지붕이 기본으로 설치 리의 반려동물이 다녀가며 반려인들의

새로운 힐링 명소로 빠르게 자리 잡고

군은 이번 개장을 시작으로 단순한 체류에 그치지 않고, 이용객들의 만족 이다. 향후 반려 문화와 지역 관광을 접 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천천 정식 개장일인 7월 11일 이후 두 달 히 오래가는 캠핑장'을 만들어 나갈 방 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접수

장수군은 2025년 하반기 '영농부산 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을 1일부 터 오는 11월 14일까지 각 읍·면 농업 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 며, 영농부산물을 전통적인 소각 방식 대신 파쇄 후 즉시 농지에 살포해 자 연퇴비화를 촉진하는 친환경 순환 농 업 실천 사업이다.

물의 영농부산물이다. 신청자는 파쇄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영농부 산물을 농지 내 일정 간격으로 모아

두어야 하며, 노끈·비닐 등 불순물은 반드시 사전에 분리해야 한다.

작업 우선순위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 △고령 농업인 및 취 약계층 △일반 농경지 순으로 정해진 인상담소에서 접수한다고 지난달 30 다. 사업은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 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 이번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영농부 산물 불법 소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한 장수군의 적극적인 대응 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농촌지역의 봄·가을철 불법 소 각은 미세먼지 발생뿐 아니라 대형 산 파쇄 대상은 사과·포도 등 과수 전 불의 원인이 되어 주민 안전을 위협해 정가지를 비롯해 고추, 깨, 콩 등 밭작 왔으며,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깨끗하 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장수군 '외신기자 프레스투어' 개최

#### 행정안전부-산림청 주관 4개국 기자단 관계공무원 방문

장수군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공 동으로 주관하는 '외신기자 프레스투 어'가 지난달 26일 장수군 일원에서 개 최됐다고 밝혔다.

중앙부처 간 협업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4개국 외신 기자단을 비롯 한 관계 공무원 총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소멸 대 응 사례를 직접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 을 가졌다.

방문단은 먼저 트레일 안내센터를 방 문해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인 '장수 군 트레일빌리지'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계자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외신 기자단은 이날 장수종합경 기장에서 열린 '제6회 장수트레일레이 스' 대회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장수군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지역 자원을 활용



관심을 가졌다.

또한 논개활공장, 장수종합경기장, 수 분마을보급소(CP) 등 주요 거점을 둘 러보며 장수트레일빌리지와 장수트레 일레이스 대회 현장에서 장수러닝크루 대표와 트레일레이스 참가 선수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생활권 로컬 한 대회의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많은 브랜딩 사업'은 생활권 단위 고유자원

을 활용해 지역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은 2023~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 비 8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군은 올해까지 '장수군 트레일 빌리지'를 조성해 트레일레이스의 성지 '한국의 샤모니'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치즈축제서 유기 동물 입양 홍보관 운영

임실군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 일간 열리는 임실N치즈축제에서 관 광객을 대상으로 유기 동물 입양 문화 확산과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계획이다. 을 위한 홍보관을 운영한다.

상담을 진행하며, 입양자에게는 배변 패드, 이동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입양 할 수 있도록 한다.

부스 내 포토존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는 키링 과 홍보 엽서를 제공해 즐거움을 더할

홍보관에는 임실군의 반려동물 인프 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양 라와 세계명견테마랜드 사업을 소개 하는 백드롭과 배너 등을 설치하고, 오 수반려누리와 반려동물 관련 사업, 캠 물품을 지원하고, 입양 기념 촬영을 진 핑장과 펫 추모공원 안내 리플릿도 배 행해 새로운 가족과의 첫 만남을 기록 치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새내기 공무원 대상 '우리 군 바로 알기' 교육 추진

무주군이 새내기 공무원 대상 "우리 는 슬기로운 공직 생활 안내부터 △직 군 바로 알기 역량 강화교육"을 무주 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고 △적 읍 드림연수원과 무주상상반디숲 등 극 행정을 위한 군정 주요 업무를 공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해 눈길을 끌고 유했다. 또한 △유적지인 '주계고성'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합숙으 드도 둘러봤다. 로 진행 중인 이번 교육은 새내기 공 무원들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 군정 주요 업무를 공유해 빠른 부겠지만 무주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 적응을 돕고 고객 만족의 행정서비스 과 공직 생활, 그리고 대표 명소들을 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들은 첫날 △ 라고 밝혔다. 자기 탐색 및 관계 형성, △성취 경험 을 통한 자신감 강화, △사고 전환을 통한 긍정적 태도 정립의 계기를 만들 었으며 △공직자로서 실천과 다짐의 시간도 가졌다.

2일 차에는 △선배 공무원들에게 듣

현장을 답사하고 태권도원과 반디랜

무주군 새내기 공무원들은 "이제야 공무원이 된 게 실감이 난다"라며 "일 둘러보며 각오를 다지는 계기도 됐다"

군에 따르면 9월 1일자로 임용된 새 내기 공무원은 모두 25명으로 △ 행정 14명 △ 세무 1명 △ 공업 1명 △ 녹지 1명 △ 보건 2명 △ 시설 5명으로 총 6 개 직렬 25명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 진안군, 추석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 일자별·당번제로 지정 운영

진안군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10월 3 일~9일) 동안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군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인 진안군의료원을 비롯 화할 방침이다. 해 관내의료기관 7개소와 휴일 지킴이 약국 7개소가 일자별·당번제로 지정 되며, 연휴 기간 중 진료 가능한 의료기 운영된다.

진안군보건소는 비상 응급진료 상황 반을 설치해 연휴 동안 상황관리에 나 선다. 또한 능금, 수항, 반송 등 보건진 이번 연휴 기간 비상진료기관은 지역 료소 8개소도 운영해 의료 공백을 최소

진안군의료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

관 및 약국 정보는 진안군청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 의료정보제공 앱, 진안군보건소(063-430-8561)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 ㈜상도푸드, 고향 김제 금구면에 팝콘치킨 65박스 전달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국내 대표 식품기업 ㈜상도푸드(대표 송기봉) 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400만원 상 당의 팝콘치킨 65박스를 전달해 따뜻한 나눔 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상도푸드는 식품개발의 선두 주자로서 상 도(商道)라는 회사명처럼 신뢰와 도리를 더해 위생적인 신공장에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축 산물 HACCP을 인증받아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을 제조, 공급하고 있는 업체다.

송기봉 상도푸드 대표는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 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 이 되고자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나눔 활 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승곤 금구면장은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 한 손길을 보내주신 상도푸드 송기봉 대표님 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후원물품 은 경로당 및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 "어르신 열정 가<del>득</del>" 완주군, 신바람 체조대회 성료

완주군이 지난 주말 고산자연휴양림에서 제 13회 건강 한마음 '씽씽쌩쌩 신바람 체조대회'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와일드&로컬푸드축제와 함께 진행돼 축제의 열기를 한층 더 높였다.

행사에는 13개 읍면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 이 출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 누구나 쉽 게 따라 할 수 있는 건강체조를 선보이며 그동 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쳤다.

신바람 체조대회는 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 천 의지를 다지고 건강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현장에는 출전팀 뿐만 아니라 13개 읍면 주 민으로 구성된 응원단들이 다양한 도구와 응 원법으로 힘을 보태며, 경쟁보다는 단합과 화 합의 의미를 되새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세아베스틸,추석맞이군산시에백미10kg513포기탁

#### 1,900만원상당백미전달 '세상을이름답게'기업정신

회복지시설·단체 등을 위해 사랑 다"라고 말했다. 의 백미 10kg 513포(1,900만 원 상 당)를 기탁했다.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 로 동참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김동혁 지원본 부장은 "민족 명절을 맞아 지역사 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할 수 있어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 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 회적 책임을 다해 지역과 함께 성 아 군산시 관내 저소득 세대와 사 장하는 세아가 되도록 노력하겠

나승환 노동조합 위원장은 "노 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소외된 이 이번에 기탁된 백미는 전북사회 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

/군산=지송길 기자



### 성일유엔아이 탁구선수단, 제19회 전북도 장애인체육대회서 3위

#### 복식경기서 공동3위 차지

남원시보건소와 정신재활시설 성 일유엔아이는 지난달 26일부터 28 일까지 3일간 고창군 일원에서 열 린 제19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남원시 대표로 탁구 선수단(성일유엔아이)이 참가해 마 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선수 8명과 임원 3 명이 단식, 복식 및 단체전에 출전 했으며, 선수들은 지난 제18회 대회 탁구 복식 은메달의 성과를 이어가 기 위해 꾸준히 훈련해 왔다.

그 결과 복식 경기에서 공동 3위

를 차지하며 값진 동메달을 획득했 다.이번 성과는 선수들이 보여준 끈 기와 도전 정신을 보여준 결과로 남 원시를 대표하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민들에게 큰 감동을 전

성일유엔아이 박경아 시설장은 "이번 대회는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고, 남원시 장애 인체육의 저력을 전북에 알릴 절호 의 무대였다"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과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익산종로약국, 1천만원 상당 어린이영양제 기탁

익산종로약국

- 저소득 가정 아동 영양제 지원

익산시에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을 응원하는 든든한 나눔이 전달 더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

로약국(대표약사 문규성)'과 취약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계층 아동을 위한 기탁식을 진행

의 면역력 증진과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어린이용 멀티비타민 영양제 125상자(1,000만 원 상당) 를 기탁했다.

문규성 대표약사는 "아이들이 록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익산시는 지난달 30일 '익산종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밝혔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익산종로약국은 성장기 아동들 위한 따뜻한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영양제는 꼭 필요한 아동들에게 소중히 전 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농협, 생활용품 꾸러미 100박스 전달

정읍농협은 지난달 2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어려운 이 나눔 꾸러미 전달을 통해 지역사 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회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1300만원 상당)를 장애인복지관 과 시각장애인협회에 전달했다.

이번에 마련된 꾸러미는 라면과 화장지 등 13만원 상당의 생활용 어려운 이웃들의 명절 준비에 실 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 고전했다. 다.

위해 행복나눔 꾸러미 100박스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하고 발전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 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랑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품과 식품으로 구성돼 경제적으로 나눔이 이어져 시민 모두가 따뜻 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정읍=김정인 기자



#### 전국한우협회 부안군지부, 명절맛이 한우 100kg 기탁

전국한우협회 부안군지부(지부장 정병만) 는 지난달 29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부안군 취약계층에 따뜻한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 한우고기 100kg(총 380만원 상당)을 기 탁했다.

정병만 지부장은 "추석을 맞아 지역 주민들 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우고기를 기탁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전국한우협회 부안군 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기탁된 한 우고기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풍성 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날 기탁된 한우고기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00명에게 전달됐다.

/부안=신상수 기자



#### 장수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 백미 50포대 기탁

장수군 번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 향숙)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번암면사무 소를 방문해 성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탁된 성품은 백미(10kg) 50포대 로, 추석 연휴를 맞아 소외되기 쉬운 관내 저 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성품 기탁은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지 역사회가 서로를 살피고 돕는 연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나눔과 배 려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된다.

이향숙 주민자치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 만 지역 주민들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 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 했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나눔과 협력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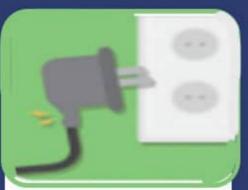
# 안전한 명절을 위한 전기 안전 수칙 5계명



다수의 주방기기 연결 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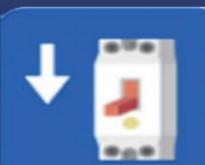
집을 비울때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 전원 וריי



전기제품 사용 전 전선이 훼손 된 곳은 없는지 확인



전열기구 사용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 가까이 두지 않기



전시화재 발생시 가장 먼저 차단기를 내려 전원끄기

〈一事一言〉



#### 정겨운 한가위, 따듯한 나눔과 情으로 피어나라

김관춘

논설위원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 사 태가 아직도 다 정리되지 않아 사 회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혐중 시 위를 주도하는 극우집단의 준동 과 함께 계층 간, 진영 간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면서 주변은 어수 선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 우리 곁에는 민족의 최대 명절 인 한가위가 찾아와, 모처럼 만에 얻은 긴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으 려는 귀성객들과 이를 맞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한껏 들뜨게 한 다. 갈등과 분열, 불안과 혼란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그림자 를 드리우고 있지만, 자연의 이치 는 그 어떤 소란에도 흔들림도 없 이 제 길을 가고 있다.

추석은 가을을 여는 문이다. 유 난히 파란 하늘은 높이 치솟아 머 리 위에 펼쳐지고, 저 멀리 겹겹 이 겹친 산줄기는 한껏 선명해져 시야 가까이 다가온다. 맑고 삽상 한 바람은 피부를 스치며 어느덧 마음 깊은 곳을 흔든다. 그렇게 바람결 하나에도 사람의 온기, 오 래된 사연, 그리운 얼굴이 떠오르 는 계절이 가을이다. 웬만큼 훈훈 한 이야기에도 눈가가 촉촉해지 고, 스쳐 들은 옛노래 한 자락에 도 가슴이 찡해지는 계절. 그 순 수의 감성이 문득 깨어나는 가을 의 초입에 우리 민족 최대의 명 절, 한가위가 있다.

봄·여름 내내 땀 흘려 뿌리고 가 꾼 것들을 거둬들이는 시기. 고향 농가의 마당에서는 풋풋함이 채 가시지 않은 햇곡식이 타작 소리 와 함께 쏟아지고, 지붕과 울타리 에는 탐스럽게 익은 호박과 박이 매달려 둥글게 빛난다.

드넓은 들판에는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앞둔 온갖 곡식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결실 의 노래를 부른다. 풍요롭고 찬란 한 수확의 계절 한가운데 서 있는 날, 그래서 추석은 "더도 말고 덜 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 는 속담으로 상징되는 넉넉함의 동의어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의 그늘에 는 늘 빈 자리가 있다. 지난 봄과 여름, 산불과 극한 폭우에 삶의 터전을 잃고 수십 년 간 쌓아온 결실마저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이웃들이 있다. 남들은 햇곡식과 과일을 한아름 거두어 들이지만, 거둘 것 하나 없이 텅 빈 손을 바 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가을밤 둥 근 보름달은 모두에게 공평히 빛 을 내려주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달빛은 차라리 잘 구워진 찐빵처 럼 멀게만 느껴질 것이다. 축제의 한가운데에서조차 마음마저 아 리고 시린 사람들이 있다.

추석은 축제다. 농경 사회를 살 아온 우리 민족에게 추석은 일 년 중 가장 큰 잔치였다. 각자 수확 한 만큼 나누어 지고, 선물 꾸러 미를 바리바리 싣고 고향집을 찾 는다. 모처럼 모인 가족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웃음소리를 곁들 추석은 곧 결실의 계절이다. 여 노래하고 춤추며 사람 사는 기 쁨을 나눈다. 수구초심이라는 말 처럼, 고향이라는 뿌리로 돌아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정을 쌓 는 시간이다. 그러나 돌아갈 집조 차, 성묘할 묘소조차 잃은 이들도 있다. 지난 계절의 산불과 폭우, 재난이 남긴 상처가 깊어 여전히 고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 다. 명절의 북적임 속에서 그들의 빈자리는 더욱 또렷이 드러난다.

추석은 또한 비움의 계절이다.

한껏 차오른 달도 머지않아 기 울듯, 꽉 찼던 풍요로움은 곧 텅 빈 겨울로 넘어간다. 농부는 거 둬들인 곡식을 다시 대지에 나누 고, 들녘은 어느새 허허롭게 변한 다. 추석은 바로 그 "꽉 참에서 텅 빔"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서 있 다. 그렇기에 추석은 단순히 풍요 의 잔치에 머무르지 않고, 나눔과 배려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일깨 운다. 가진 자는 없는 이에게 베 풀고, 가득한 마음은 비어 있는 마음과 손을 채워준다.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사람 사는 맛"을 느 끼는 사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추석의 참뜻일 것이다.

요즘 우리의 사회는 너무나 빠 르게 변하고 있다. 경쟁과 갈등, 불안과 고단함 속에서 정작 중요 한 것을 놓치고 사는 듯하다. 하 지만 추석만큼은 다르다. 잠시 모 든 것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얼굴 을 마주한 가족·친지와 함께 웃 고 먹으며, 그동안 묻어두었던 따 뜻한 마음을 꺼내 놓는다. 차가운 세상 속에서도 나누는 밥 한 그 릇, 함께 올려다본 달빛 한 자락 이 사람의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엮는다. 바로 그 미풍양속이 오늘 날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탱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올해 추석에도 우리는 서로 다 른 자리에서 각자의 사연을 안고

보름달을 바라볼 것이다. 어떤 이 에게는 풍요의 달이, 또 다른 이 에게는 그리움과 허전함의 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달빛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내리쬔다. 그 빛 을 매개로 우리 마음 또한 이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내미는 따뜻한 손길, 작은 배려와 나눔이 모여 추석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

부디 이번 한가위만큼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랜 세월 이어 온 미풍양속이 다시 살아나길 바 란다. 고향집 사랑방에서, 도심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혹은 홀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에서도 따스한 情이 물안 개처럼 피어오르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따뜻한 정이 차오를 때, 비로소 우리는 추석의 참뜻을 되 새기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삶이 넉넉하고, 모두의 마음이 풍요로 운, 정겨운 한가위가 되기를 간절 히 소망한다.

####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전북 균형발전 꾀해야

예로부터 길(교통)은 물자와 사람을 이동, 교류시킨다는 점에서 발전의 기초 조건이 되었다. 길이 없으면 오지가 되 었고 뚫리면 성시를 이뤘다. 내륙의 오 지라는 불명예를 안고 오랫동안 변방 에 머물렀던 전북이 이제 전주권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섰 다. 교통 인프라는 지역 발전의 기초이 며, 도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이다. 이번에 전북도가 마련해 국토교통 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은 단순 한 도로와 철도 확충을 넘어 지역을 잇 고 성장의 길을 열어가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계획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2조 2천여 억에 달하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8백여 억을 국비로 충당한다. 주요 사업 은 전주를 중심으로 완주・익산・김제・군 산을 연결하는 15개 핵심 사업으로, 광 역도로·광역철도·공영차고지·환승센터 건설이 골자다. 특히 전주~새만금을 잇 는 76km 구간의 광역철도는 9개 정차 역을 거쳐 동서축을 관통하며, 전북 발 전의 새로운 대동맥이 될 것으로 기대된 다.

교통망 확충은 단순히 이동 시간을 단 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는 곧 생활 권을 확장하고 산업의 동맥을 이어주며, 청년과 기업이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지금까지 전북은 '낙후 된 교통'이란 고질적 한계로 인해 산업 투자 유치와 인재 확보에서 번번이 어려 움을 겪어왔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이러 한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계획이 지역균

형발전의 관점에서 마련됐다는 것이다. 10개 방사형 광역도로 사업은 전주 외 곽과 인근 시군을 4~6차선 도로로 연결 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지역 간 접근 성을 크게 제고한다. 익산과 군산, 새만 금으로 이어지는 철도망과 환승센터는 도내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내 고, 수도권·충청권 중심으로 짜인 국가 교통체계 속에서 전북의 존재감을 키우 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득력 있 는 논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한 지역 주민과 시군의 목 소리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 히 반영해야 한다.

광역철도 노선과 환승센터 위치, 공영 차고지 운영 방식 등은 주민 생활과 직 결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 영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한 시설 건설을 넘 어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요금체 계의 합리화, 환승 편의성 제고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전북은 지금 새로운 교통혁명의 문턱 에 서 있다. '삶을 잇고 기회를 여는 전 주권'이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가계획 반영과 안정적 예산 확 보, 철저한 사업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교통은 곧 발전이며, 발전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전주권 광역교통망이 성 공적으로 구축돼 전북이 더 이상 변방이 아닌,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도 약하기를 기대한다.

### ┌ ▲오늘의시

#### 시월 / 나희덕

산에 와 생각합니다 바위가 山門을 여는 여기 언젠가 당신이 왔던건 아닐까 하고, 머루 한 가지 꺾어 물 위로 무심히 띄워보내며

붉게 물드는 계곡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하 卫, 잎을 깨치고 내려오는 저 햇살

시인 약력 1966년 충남 논산 출생. 연세대 국문 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신 어깨에도 내렸으리라고, 산기슭에 걸터앉아 피웠을 담배연기 저 떠도는 구름이 되었으리라고, 새삼 골짜기에 싸여 생각하는 것은 내가 벗하여 살 이름 머루나 다래, 물든 잎사귀와 물, 山門을 열고 제 몸을 여는 바위, 도토리, 청설모, 쑥부쟁이 뿐이어서

시 '뿌리에게'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시집으로 '뿌 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등이 있고 산문

당신이름 뿐이어서 단풍 곁에 서 있다가 나도 따라 붉어져 물 위로 흘러내리면 나 여기 다녀간줄 당신을 아실까 잎과 잎처럼 흐르다 만나질 수 있을까 이승이 아니라도 그럴 수는 있을까

집으로 '반 통의 물' '저 불빛들을 기억해' 시론집 으로 '보랏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등이 있다.



원동향약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서원향교문서, 좌목 -지정일 - 1994년 8월 10일

-소재지- 남원시 주천면 외평2길 16 (장안리)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복 가 -00022[발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시대 - 조선시대

인쇄인 김은주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광경철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백스 283-8800 구사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전주지사 010-9645-4113 남원자국 010-2285-3987 書管以从 010-9578-4271 御保取号 010-8642-6502 교환지국 010-2258-3734 역산지국 010-0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管門以外 010-3015-4791 # PUTILLE 010-5242-3694 製品対象 010-2000-2004 企業期間 010-5312-7292

-구독료 :열16,000원, 1부 500원 - 왕지는 선명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완주, BTS 발자취 따라 조선의 서사를 걷다"

완주는 지금, 한국의 역사와 K-콘텐츠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 로운 관광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 였던 이 땅은 BTS의 문화적 발자취까지 품고 있으며, 역사와 콘 텐츠, 생태와 교육이 융합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교육여행과 글로벌 관광상품으로 확장 가능한 복합 문화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2025년 3월부터 시작된 '다시 만나는 영웅, 태조 이성계' 역사 탐방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와 로컬콘텐츠연구소가 공동 기획한 대형 문화관광 프로젝트다. 총 10회 중 9회가 이미 운영 되었으며, 마지막 10회차는 국내 유학 중인 외국인 석·박사 과 정을 대상으로 준비 중이다. 이 중 4회가 완주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완주가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BTS 촬영지라는 문화적 자산을 동시에 지니 고 있기 때문이다.

#### 역사·문화·생태가 융합된 교육여행지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 도약

가른 두 전투, 웅치전투와 이치전투가 구만리의 봉강서원에 배향되어 있다. 벌어진 곳이다. 웅치전투는 조선 관군 과 의병, 그리고 민초들이 힘을 모아 왜 군을 막아낸 임진왜란 초기의 의미 있는 이를 더해주는 문화적 자산으로 평가된 승전으로 기록된다.

이는 조선의 국난극복 서사에서 최초 이러한 역사적 상징성은 BTS라는 현 의 집단적 저항이자 승리로 평가되며, 대 콘텐츠와 만나 더욱 강력한 관광 자 완주가 조선왕조의 생존과 민중의 저항 산으로 작용한다. 완주 오성제는 BTS가 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화보 촬영을 진행한 장소로 알려지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북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한 사



역사적 상징성과 콘텐츠 자산이 만나는 선 초기 왕권 다툼의 중심인물로, 제2차 왕자의 난에서 패배한 뒤 완산 일대에 완주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운명을 유배되었으며, 그의 위패는 완주 봉동읍

> 지역에는 그와 관련된 설화와 구전이 일부 전해지며, 이는 완주의 역사적 깊

팬들 사이에서 '성지'로 불린다. 단순한 이치전투는 그 흐름을 이어간 결정적 촬영지를 넘어, 팬덤이 자발적으로 찾아 전투로, 조선의 저항 의지를 강화하고 와 사진을 남기고, 그 공간의 의미를 재 해석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장소가 된

미' 26명이 완주를 방 이들은 단순한 팬투어 를 넘어, 조선의 건국 서사와 BTS의 문화 적 상징성을 연결하며 "한국의 역사와 현재 를 동시에 체험한 느 겼다.

BTS 촬영지는 오성 제를 중심으로 위봉

인 회안대군 이방간과 관련된 흔적이 남 산성, 아원고택, 용암상회, 비비낙안 카 도 하다. 아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방간은 조 페, 페러글라이딩 체험장 등으로 확장된





연결되며, 팬들에게는 '성지순례'의 코 또 완주는 태조 이성계의 넷째 아들 실제로 지난 9월, 일본 BTS 팬클럽 '아 스로, 일반 관광객에게는 감각적 콘텐츠 다. 완주의 자연은 단순한 경관이 아니 화를 체험하는 생산지로 기능한다. 삼례문화예술촌과 문해 오성제와 인근 오성한옥마을 등도 함께 연계되며, 완주 관광지를 탐방했다. 는 콘텐츠 친화형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교육여행지로서의 입체적 가능성

행지로서의 입체적 매력을 갖춘 지역이 다. 이곳은 조선왕조의 국난극복 중심지 낌"이라는 반응을 남 였던 웅치·이치 전투의 현장이자, BTS 촬영지라는 글로벌 콘텐츠 자산을 품고 있으며, 동시에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만경강 발원지를 품은 자연의 보고이기

특히 만경강 발원지와 연계한 생태관 목하는 '참여형 학습 여행'이 가능한 지 구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소비 있다.

우 유리하다. 학 생들은 강의 시 작점에서 물의 순환과 생태계 를 직접 관찰하 며, 환경과 인간 의 관계를 체험 수 있다. 이는 교 되어 있으며, 이들이 완주를 방문하는

과서 속 이론을 다. 이들 장소는 BTS의 감성적 이미지와 넘어, 현장에서 생태 감수성과 지속가능 투어를 넘어, 한 성에 대한 인식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 라, 생태적 사고를 자극하는 살아있는 기회가 된다. 실

이와 함께 웅치·이치 전투 현장은 역 그룹의 방문은 사적 감정선과 공간의 상징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선왕조의 위 여주는 사례다. 기와 민중의 저항이라는 서사를 현장에 완주는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교육여 서 학습할 수 있다. BTS 촬영지인 오성 어·일본어·중국 제, 아원고택, 용암상회, 비비낙안 카페, 페러글라이딩 체험장 등은 청소년들에 게 문화적 흥미를 유발하며, 콘텐츠 생 산의 장으로 기능한다.

역이다.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 콘텐츠 뿐 아니라 생산에 적극적인 팬덤의 특성 제작형 체험, 지역경제와의 연계까지 가 은 완주를 '참여형 글로벌 관광지'로 성 능한 완주는 미래형 교육여행지로서의 장시키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된다.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적으로 이해할 할 수 있다. BTS 팬덤은 전 세계에 분포 한 복합 플랫폼이다.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의

것은 단순한 팬 제로 일본 아미 그 가능성을 보

향후에는 영 어 등 다국어 해

역사유적지를 연계한 스토리텔링 콘텐 이미 시작된 흐름이다. 이제 필요한 것 츠를 개발함으로써, 완주를 'K-관광의 은 이 흐름을 정규화하고, 콘텐츠를 고 완주는 이처럼 역사·문화·생태를 아 성지'로 브랜딩할 수 있다. BTS의 세계 도화하며,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전 우르는 교육여행 콘텐츠를 갖추고 있으 적 영향력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 지역 략적 실행이다. 완주는 그 중심에서, 한 며,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기 의 문화자산을 세계에 알리는 전략적 도 국 관광의 새로운 서사를 써 내려가고

완주는 지금, 콘텐츠와 서사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관광의 미래를 열고 있 다. BTS의 흔적과 조선의 국난극복 서 사, 그리고 지역의 문화자산과 생태자원 완주의 관광자원은 국내 교육 여행뿐 이 융합된 이 공간은 단순한 여행지를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 관광지로도 확장 넘어, 교육과 창작, 체험과 확산이 가능

교육여행 유치와 글로벌 콘텐츠 관광



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BTS 촬영지와 상품 개발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완주=김명곤 기자

